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路遙의『人生』연구
-高加林의 성격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 語 中 文 學 科

董 雅 珍

2022年 8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路遙의 『人生』 연구
-高加林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홍 선

동 아 진

이 논문을 중어중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8월

동아진의 중어중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崔晳元 ㊞

위 원 鄭暻暻 ㊞

위 원 趙洪善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0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Lu Yao's 『Life』

- Focused on Gao Jialin's Personality

YaZhen Dong
(Supervised by professor Hong-S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August. 202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緖論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범위 ····· 4

Ⅱ. 작가와 작품 소개 ····· 7
1. 작가 路遙 ····· 7
2. 작품 『人生』 ····· 10
1)『人生』의 줄거리 ····· 10
2)『人生』의 창작 과정과 창작 동기 ····· 11
(1) 창작 과정 ····· 11
(2) 창작 동기 ····· 15
3. 주요 인물 소개 ····· 17
1) 劉巧珍 ····· 17
2) 黃亞萍 ····· 20
3) 德順 ····· 23

Ⅲ. 『人生』과 동시기 이론과 작품의 인물 성격 ····· 28
1. '三突出' 이론 인물 ····· 28
1) '三突出' 이론과 인물 성격 ····· 28
2. 傷痕文學 대표작품 인물 ····· 29
1) 傷痕文學과 「班主任」 ····· 29
2) 張俊石의 성격 ····· 30
3. 反思文學 대표작품 인물 ····· 32
1) 反思文學과 「李順大造屋」 ····· 32
2) 李順大의 성격 ····· 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高加林의 성격 분석 ····· 35
1. 자존과 허영 ····· 37
2. 반항과 타협 ····· 43
1) 무지에 대한 반항과 타협 ····· 43
2) 不正에 대한 반항과 타협 ····· 44
3) 연애에 대한 반항과 타협 ····· 46
3. 순수함과 이기심 ····· 48

Ⅴ. 結論 ····· 52

참고문헌 ····· 54
中文摘要 ····· 56
Abstract ····· 5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본고는 路遙의 1982년 작 『人生』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 高加林의 성격 분석에 치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人生』의 창작 과정과 줄거리 및 주요 인물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人生』의 동시기의 창작이론과 다른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을 살펴본다. 주로 “三突出” 창작 이론에서 요구하는 인물인 ‘주요 영웅인물’, 상흔 문학 「班主任」의 張俊石의 이타주의와 반사 문학 「李順大造屋」의 李順大의 자아상실 등을 그들의 성격으로 먼저 분석・제시한다. 다음 장에서 高加林의 성격으로 자존심과 허영, 반항과 타협, 순수와 이기 등 모순적이면서도 공존하는 그의 성격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路遙가 80년대 초와 같이 문학 창작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창조해낸 高加林이라는 인물의 독특한 가치를 알 수 있었다.

키워드: 路遙, 高加林, 인물 성격, 三突出, 상흔문학 ,반사문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緖論

1. 연구목적

『人生』은 개혁 시기 陝北 고원의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980년대 중국은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으로 구분하며 호적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런 "二元 호적제도"[1] 때문에 중국 사회는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되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제 제도와 생존 방식, 문화적 특징, 가치 관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격차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路遙는 『人生』에 대해서 일찍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이 책의 이야기는 '4인방'이 몰락하고 중국의 개혁이 아직 대규모로 전개되지 않은 특수한 역사 시기에 발생하였다. 그때 중국은 악몽과도 같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 탐색하는 중이었으며, 장기간 쌓여온 각종 모순이 중국 사회생활 속에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시기 중국의 산물로서 그들의 비극은 뚜렷한 사회적, 시대적 특징이 있다.[2]

---

1) 嚴士淸, 『新中國戶籍製度演變歷程與改革路徑硏究』, 華東師範大學, 2012, 34쪽~37쪽 참조.
1958년 1월 『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의 반포실시는 도시와 농촌을 격리하는 이원호적제도의 최종 확립을 상징한다.신중국 호적제도의 이원성은 호적제도를 통해 전 국민의 신분을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으로 구분해 호적구조에서 서로 독립된 두 단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제도의 이원성은 계획경제체제의 형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초래한다. 호적등록제, 취업제, 곡물통매입통매각제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복지혜택이 우수해 도시 주민들의 농촌 이동을 꺼리고 있다. (1958年1月『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的頒布實施，標誌著城鄉隔離的二元戶籍製度的最終確立。新中國戶籍製度的二元性是指通過戶籍製度將全體公民的身份定格爲城市居民和農村居民兩個群體，構成戶籍結構中相互獨立的兩個單元。戶籍製度的二元性是隨著計劃經濟體製的形成而逐漸形成的，它從兩個方面導致城鄉隔離的形成。一方面通過戶口登記製度，就業製度，糧食統購統銷製度等阻滯農村人向城市流動；另一方面優越的福利待遇使城市居民不願意向農村流動。)

2) 路遙, 「『人生』法文版序」, 『早晨從中午開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20, 142쪽.
這本書的故事發生在我國一個特殊時期-四人幫剛剛覆沒，中國的改革還沒有大規模開展的時候。那時，中國一個噩夢般的時代結束了，而新的生活還處於醞釀和探索之中，長期積累起來的各種矛盾在中國社會生活中已經處於最復雜最深刻的狀態。悲劇的主人公就是這個時代的産兒-他們的悲劇當然有著明顯的社會和時代的特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자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路遙가 1979년 초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陝西의 농촌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고, 1981년 여름, 그가 초고를 마쳤을 때는 농촌 가정도급제(包産到戶)[3]가 거의 완성되었다. 사회뿐만 아니라 문학계도 '신시기'[4]를 맞이했다. 문화대혁명에서 개혁개방으로, 시대 배경에 따라 문학의 흐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 기간에 현실과 동떨어진 문학 창작론 '三突出'[5]이론은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았고 문화대혁명이 지식 청년에게 입힌 정신적 내상을 고발한 상흔문학(傷痕文學)이 발전하다가 문화대혁명의 부조리한 본질에서 역사적 경험의 교훈을 탐구하는 반사문학(反思文學)이 시작되었다. 1978년 11기 3중 전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경제 체제 개혁이 시작되어 문학 방면에서도 사회개혁을 중심으로 개혁문학(改革文學)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학이 줄곧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路遙는 오히려 이 발전 속에서 문학 창작이 단조로워지고 창의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깨닫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 당대 문학의 현실에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인물을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면 문학은 극단으로 내몰려서 세 살짜리 어린아이 마저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학적 현상에 도전하였다.[6]

路遙의 소설『人生』은 당시 문학적 유행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와 함께 인물의 성격을 단조롭게 표현하지도 않았다. 동시대 陝西 작가들의 작품과 크게 다른 점은 賈平凹와 陳忠實처럼 농촌개혁의 진행 과정이나 농촌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路遙는 농촌개혁에서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개인분투사(個人奮鬥史)'로 다루었다. 기존 소설이 농촌개혁의 제도에 집중했다면,『人生』

---

3) 包産到戶: 1978년 시행된 가족연산 도급책임제는 농민들이 가족단위로 토지 등의 생산자재와 생산임무를 집단경제조직(주로 마을, 집단)에 도급하는 농업생산책임제 형식이다. 그것은 중국 현 단계에서 농촌의 기본적인 경제 제도이다. 『中華人民共和國城鄉規劃法』,1956.

4) 洪子誠 박정희 옮김,『중국당대문학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0, 147쪽 참고. 문화대혁명 후의 문학을 70년대 말부터 '신시기 문학'이라 불렀다.

5) 본고 P30 참고.

6) 路遙,「寫作是心靈的需要-對文朋詩友的講話」,『早晨從中午開始』,143쪽
當代文學的現實中最大的遺憾是，將人物分爲兩種：好人或壞人。這樣，就將文學現象推到了極端，甚至連3歲的小孩也可以分辨淸哪些是好人，哪些是壞人。所以我在寫作時，對這種文學現象進行了挑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농촌개혁 속 개인의 생존에 집중했다.

농촌을 떠나 다시 농촌으로 강제로 들어간 高加林의 비극적인 경험은 학자들의 연구로 이어졌다. 필자는 기존 연구와 달리 高加林의 성격을 통하여 『人生』을 연구하고자 한다. 작가는 시대적 문제를 소설 속 해당 시대의 주인공들이 하는 일을 통해 표현한다. 인물의 성격은 곧 시대의 산물이며, 성격 변화는 소설 속에서 줄거리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독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작용을 한다.

『人生』의 주인공 高加林의 성격은 종합적이면서도 대립적이다. 그에게서 우리는 단편적인 성격의 인물이 주를 이루는 기존 소설에서는 보지 못했던, 한 인물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설 속 인물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다. 그의 성격의 대립성은 사회가 만들어 냈으며 그의 성격 변화를 통해 그가 처한 사회환경 즉 80년대의 도시와 농촌의 양분화 현상을 이해하고 당시의 사회 문제에 주목할 수 있다.

『人生』은 80년대 초에 발표되었는데, 그 당시 "신시기 문학은 제재결정론·주제선행론·'三突出' 등 '4인방'의 문예정책의 비판을 기점으로 '문예 흑선 독재론'이 전복시켰던 역사를 다시 뒤집으려 함으로써 최초의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7] 路遙의 문학 도전 역시 문화대혁명문학 '三突出' 이론과 같은 '고, 대, 전'의 영웅적 인물에 대한 것부터 시작되었다.[8] 또한, 그 당시는 상흔문학과 반사문학 등 새로운 문학이 성행하던 시대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人生』의 장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일련의 연구자들은『人生』과 같은 시기의 다른 작품들은 "대량의 사회비극에 접하기 시작했으며 '反右', '大躍進', '文革' 등에 대한 인식은 분명 더 깊이 있고 넓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9]고 하면서 『人生』을 상흔문학의 범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人生』은 반사문학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설은 高加林의 개인의 인생 비극을 반추하면서,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사람에게 존엄과 가치를 해친 것을 비판"[10]하였다. 이렇게 문화배경과 사회제도

---

7) 楊曉帆, 『路遙論』, 50쪽, 北京, 作家出版社, 2018.
新時期文學最初合法性的建立，是以批判題材決定論、主題先行論、'三突出'等一系列'四人幫'文藝政策爲起點，要把文藝黑線專政論顚倒的歷史重新顚倒過來。

8) 楊曉帆, 『路遙論』, 202쪽 참고.

9) 孟繁華, 程光煒, 『中國當代文學發展史』, 229쪽, 北京大學出版社 2011.
"開始触及到大量的社會悲劇"，對反右，大躍進，文革的認識，明顯朝着更有深度和广度的方面發展。"

10) 朱棟霖, 朱曉進, 『中國現代文學史 (1917－ 2000)』 (下), 151쪽, 北京大學出版社, 2007.
"小說在反思 高加林个人人生悲劇的同時,深刻地批判了固有社會經濟体制下巨大的城鄉差距給人的尊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만 분석하면 『人生』은 상흔문학과 반사문학의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人生』에서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劉鳳芹은 “영국 문학 비평가의 말처럼 사람은 다면적이고 그런 사람을 ‘원형 인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시기 이전에 당대 문학에서 창조된 이런 인물은 많지 않다. 특히 문화대혁명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박탈되며 인물에 대한 간단한 판단은 극에 달했다”[11]라고 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高加林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高加林의 성격 분석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의 종합적인 성격에 담긴 문학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문학작품 및 인물들을 비교하는 사례연구의 방법을 활용한다. 본문 2장에서 작가 路遙와 『人生』의 줄거리, 창작 과정을 설명하고, 주요 인물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人生』 동시기 이론과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人生』의 高加林의 성격과의 비교를 위한 준비를 한다. 나아가 4장에서는 주인공인 高加林의 종합적인 성격을 대립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高加林의 복잡하고 모순된, 그러나 인간적인 성격을 밝힌다. 마지막 5장 결론 부분에서는 본고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을 언급하며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路遙는 중편 소설『人生』을 1979년부터 1981년까지 2년 정도 여에 걸려 완성하였으며 1982년 잡지 『收獲』에 이를 발표했다.

중국 논문 사이트 CNKI에서 ‘路遙 『人生』’을 주제로 검색하면 논문 약 1150여 편이 있고 그 중 학위논문은 약 200여 편이 있다.[12] 학위 논문을 보면 路遙의 소설 『平凡的世界』와 『人生』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도

和价值帶來的殘害。”

11) 劉鳳芹, 「圓形人物的塑造：路遙創作論」, 山東菏澤學院中文系, 『山花』, 2009, 4기 참고.

12) 2022년 3월에 www.oversea.cnki.net에서 검색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농 교차점과 창작이론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路遙의 현실주의, 당시의 지역 문화 등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高加林에 대한 연구가 많다. 1982년 10월 7일의 『文匯報』와 1983년 제1기 『青年文學』에는 각각 평론 한 조가 실렸다. 그 중에 曹錦清의 「一個孤獨的奮鬥者形象-談『人生』中的高加林」, 梁永安의『可喜的農村新人形象-也談高加林』, 唐摯의「漫談『人生』中的高加林」, 蔣萌安의「高加林悲劇的啓示」등이 있다. 高加林이 '농촌신인'[13]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梁永安은 '高加林이 현대화 생활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문명을 추구하는 정신이 농촌사회의 귀중한 변혁의 힘'이라고 생각한다.[14] 그러나 曹錦清은 비판의 한 축으로 高加林이 집단을 떠나 사회적 분업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낙후된 농촌을 개조하는 임무를 평생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1985년 李劼은『當代作家評論』에 발표된 『高加林論』에서 高加林은 신세대 농촌 청년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 높이 찬양하였다. 위의 연구성과를 보면 연구자들은 高加林이 당시 다른 작품 인물들과 다른 점과 농민으로서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복잡하고 모순된 성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최근 高加林에 관한 학위논문도 많지는 않다. 그중에서 高加林의 형상에 대한 (2017) 『高加林人物形象構造史研究』(劉立燦, 海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와 吳玲의『從歐陽海到高加林－論'青年'文學形象在８０年代的轉變』(沈陽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년)이 있다. 그러나 高加林의 다면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는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高加林은 같은 시기 다른 작품들이 창조해낸 '사회주의 신인'[16]과는 사뭇 다르다. 그의 심리는 복잡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의 욕망으로 충만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전통적 사회규범과 도덕적 구속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처럼 복잡하고 살아 있는 인물은 건국 이후 당대 문학의 인물 계보를 거의 돌파했고, 여전히 주류였던 혁명적 언어와 집단주의에 부딪쳤다. 이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한국 논문 사이트 RISS에서 "루야오"로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학술논문은 3편이고 학위논문은 5편이다.[17] 그중에서 『人生』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 4편이 있는

13) 농촌신인:1979년 鄧小平은 제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문예창작을 사회주의 신인의 묘사와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을 했다. 농촌 신인은 측 농촌 제재 중의 사회주의 신인이다.
14) 梁永安, 『可喜的農村新人形象-也談高加林』, 『文匯報』, 1982, 10 참고.
15) 曹錦清, 「一個孤獨的奮鬥者形象-談『人生』中的高加林」, 『文匯報』, 1982, 10 참고
16) 사회주의 신인: 鄧小平은 이상·도덕·문화·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신인 이론을 제기했다. 第四次全國代表大會, 1979.
17) 2022년 3월에 http://www.riss.kr/index.do에서 검색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데 소설 인물에 대한 연구로는 최정임의 「路遙의 『人生』 硏究 : 주인공 高加林의 비극적 삶의 원인분석 중심으로」밖에 없다. 최정임은 주로 개인 문제과 사회 문제를 통하여 高加林의 비극적인 운명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이미호의 「『人生』과 『我們的路』에 나타난 농촌 청년 문제 연구: 호구제도와 교육제도를 중심으로」는 『人生』과 『我們的路』를 비교하여 중국의 호적제도와 교육제도가 불러온 농촌 청년 문제를 분석했으며 김여정의 「路遙의 『人生』 연구: 1980년대 초 중국의 가치관 재정립 시도」는 소설 속 주요 인물 중 하나인 德順의 분석을 통하여 80년대 초에 새로이 정립하려는 인생의 가치관을 정리를 했다. 그리고 장함의 「『가오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18]의 중한 번역연구」는 『人生』이 소설 한국에서 번역하였을 때 나타나는 번역기법을 탐색하였다.

『人生』의 주인공 高加林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대부분은 高加林의 애정과 사업의 비극성을 연구하거나 80년대의 청년으로 나타나는 "典型性"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제도 문제에 대한 탐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80년대 문학 창작의 각도에서 高加林을 분석하면 그는 완전히 당시에 "二值判斷"[19] 의식을 벗어난 인물이다. 이에 본 연구는 『人生』동시기의 이론과 작품에서 나온 대표 인물의 성격을 보자고 한다. 나아가 高加林의 다양한 성격분석을 통하여 高加林의 성격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바탕으로 『人生』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2020년 10월 北京十月文藝出版社에서 출판된 문헌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20]

성근제, 『루야오의 '도논 교차지대'와 은폐된 서사』,2017.
백영선, 『平凡的世界에 나타난 주요 인물의 성장유형과 작기의식 고찰』, 2016.
백영선, 『路遙의 平凡的世界에 나타난 陝北 민속문화 고찰』, 2017.
이승희, 『路遙 소설에 나타난 1980年代 中國 回鄕知靑 서사 연구』, 延世大學校大學院, 2019.
장함, 「『가오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의 중한번역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이미호, 「『人生』과 『我們的路』에 나타난 농촌 청년 문제 연구 : -호구제도와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최정임, 「路遙의 『人生』 硏究 : 주인공 高加林의 비극적 삶의 원인분석 중심으로」, 全北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김여진, 「路遙의 『人生』 연구:1980년대 초 중국의 가치관 재정립 시도」,濟州大學校中語中文大學院, 2019.

18) 허유영 옮김, 『가오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17년 12월 12일.
19) 劉鳳芹, 「圓形人物的塑造 : 路遙創作論 」, 山東菏澤學院中文系, 『山花』, 2009, 4기.
"二值判斷 : 卽黑白邏輯, 非是卽非, 非善卽惡, 非白卽黑。"
20) 번역은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2017)에서 출판된 허유영 변역의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을 참고하나 원문과 대조하여 문제가 있는 번역은 필자가 따로 고쳐서 인용할 것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작가와 작품 소개

1. 작가 路遙

王春林은 路遙와 陳忠實, 賈平凹를 중국 陝西뿐 아니라 중국 당대 문학에서도 중요한 작가로 꼽았다고 여긴다. 문학 지리학적 관점에서 陝北의 路遙, 關中의 陳忠實, 平南의 賈平凹는 지리적 요인의 영향과 제약으로 문학 창작 풍격에서 뚜렷한 지역 문화적 특색을 보인다는 것이다.[21]

路遙는 陝北 농촌 출신으로 그의 문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도농 관계, 그리고 사회 전환기의 농촌 현실과 농민의 운명, 특히 신세대 농촌 총각들의 삶의 선택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1949년 陝西성의 빈궁한 가정 출신으로 농촌인 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延川縣에서 중학교에 다녔다. 청소년 시기는 대부분 농촌과 현성을 오가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때마침 문화대혁명을 맞아 잠시 '紅衛兵' 생활을 한 뒤 고향에 돌아갔다.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 운영법을 가르쳐주고 현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1973년 延安大學에 입학했다. 졸업 후 『陝西文藝』의 편집자로 陝西省의 문예 단체에 들어가 1982년 현성 호적을 제대로 갖춘 전문작가가 됐다. 이때부터 路遙는 '농예성적(農裔城籍)'[22] 작가라는 칭호가 붙었다.

路遙의 문학창작은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시작됐다. 그가 경험한 갖가지 신분, 즉 '紅衛兵' 路遙, 현혁위 부주석 路遙,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문예 홍보팀 팀원 路遙, 현성 공농병 문예 창작팀 자체 간행물 『山花』 발기인 路遙, 延安大學 중문과 공농병 학생 路遙 등은 모두 路遙의 귀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대혁명과 관련한 신분 뒤에는 농촌 청년 路遙가 한 걸음 한 걸음 사회의 구석에서 정치무대까지 올라 문단(文壇) 경험에 의해 도시로 가는 여정이었다.

---

21) 王春林, 「賈平凹、陳忠實与路遙－『陝西三大漫談』」, 2020.
22) 농예성적(農裔城籍): 1989년 평론가 李星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갔고 도시 호적을 받은 陝西 작가에 대해 내놓은 개념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70년 新勝古大隊 칠판보에 시 『我老漢走著就想跑』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塞上柳』,『進了劉家峽』,『樺樹皮書包』 등 정치적 서정시와 서사시를 다수 창작했다. 문화대혁명 종결 직후인 1977년 路遙는 <周總理回延安>에 참여하는 한편 『基石』, 『父子倆』 등 다수의 소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인턴기자로 「銀花燦燦」, 「燈光閃閃」 등 농업 생산의 선진 인물을 칭송하는 뉴스와 산문, 수필 등을 썼다. 또 谷溪, 聞頻 등과 장편 시 「紅衛兵之歌」, 장편 기사 「吳堡行」, 오페라 『第九支隊』 등을 함께 썼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문화대혁명의 분위기와 정치색이 너무 진해서 진정한 문학창작이라 보기 어렵다. 路遙의 문학적 자각은 1980년에 발표한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이 담긴 『驚心動魄的一幕』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3]

『驚心動魄的一幕』부터 『人生』과 『平凡的世界』 등은 路遙가 걸어간 문학의 세 가지 중요한 단계다.「驚心動魄的一幕」은 첫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는 路遙의 단편소설 처녀작으로서, 대부분의 路遙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路遙가 진정으로 전국 문단에 이름을 알린 출세작으로 평가한다. 『驚心動魄的一幕』은 路遙 자신이 직접 경험한 문화대혁명의 무장투쟁을 소재로 하여 문화대혁명 초기에 中共延川縣委書記를 지낸 張史傑을 모티브로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당시 상흔문학에 맞춰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대신 어느 산악지대의 縣 당서기인 馬延雄이 문화대혁명에서 兩派의 무장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자기희생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작품은 『延河』 부편집장이자 路遙의 은사 賀抒玉이 한 대형 문학지 편집장에게 추천했다가 얼마 후에 반송된 이후, 2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간행물에서 반송됐다.[24] 그 당시에 路遙는 보낼 때마다 발표를 기다리는 조바심에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1980년 봄, 그가 완전히 낙심하고 있을 때 『當代』[25]에서 그의 소설을 발표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결국 『驚心動魄的一幕』은 『當代』 1980년 제3기에서 발표되었고 秦兆陽의 추천으로 1979-1981년도 '『當代』문학상'과 '제1회 전국 우수중편소설상' 등을 받았다. 이로써 路遙는 신시기 陝西 작가 중 처음으로 '전국 우수

23) 楊曉帆, 『路遙論』, 19쪽.
或許因爲這段時期的作品帶有濃重的"文革文學"味道，人們習慣性地將路遙的文學自覺，追溯到1980年輾轉發表的反思"文革"之作『惊心動魄的一幕』。
24) 馬一夫, 厚夫, 宋學成,「路遙紀念集,賀抒玉：『短暫輝煌的一生』」, 人民文學出版社, 2007, 257쪽.
25) 『當代』는 문화대혁명 이후 문학잡지의 '四大名旦' 중 하나로 '인생을 직시하고 현실에 가까이 다가서다'는 특색이 있으며, 사실주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전체적으로 대범하고 중후하여 『當代』에 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작가들이 꿈꾸고 있는 일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편소설상'을 수상한 작가가 되었다. 이 성공으로 路遙는 나중에 『人生』과 『平凡的世界』등의 대표작을 창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路遙의 인생 두 번째 단계는 바로 『人生』의 발표 시기다. 13만 자의 이 소설은 이십여 일 만에 완성되었고 이때 제목은『沉浮』였다. 그는 21일 동안 하루 18시간씩 일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1981년 가을, 路遙는 中國青年出版社의 편집자 王維玲에게 원고를 보냈다. 얼마 후 王維玲의 답장을 받고, 이 소설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제기했다. 연말에 작품 수정과 관련하여 路遙가 북경에 갔고, 王維玲이 이 소설 제목을『人生』으로 바꾸었다. 이후 巴金이 주편인 대형 문학지『收獲』에서 1982년 제3호에 『人生』이 발표되었다. 『人生』은 발표 직후 문단을 뒤흔들어 당대 문학 한편의 개척적 역작으로 꼽히며 제2회 전국우수중편소설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路遙는 『人生』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했다. 당시의 평론가들은 路遙의 소설은 더 이상 『人生』을 넘어설 수 없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26] 이에 路遙는 毛烏素사막에 가서 '대작'을 완성하겠다는 결심하였다. 路遙는 『平凡的世界』를 쓰면서 진정한 행복은 사회의 평가나 우열이 아니라 개인이 내면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형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27]

『平凡的世界』 1부는 1986년 11월 『花城』 잡지 6기에 발표되었다. 발표 초기 냉대를 받던 『平凡的世界』는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이 아닌 사실주의적 창작 기법으로 인해 비평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진 못했다. 그러나 라디오와 티비 등 매체의 개입으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었다. 평론계는 문학성과 사상의 깊이를 중시했으나, 그들의 취사선택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중은 진정으로 작품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平凡的世界』는 비평계를 넘어 독자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전으로 떠올랐다. 1991년 '茅盾文學獎'을 수상하면서 학계는 다시 『平凡的世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세 작품을 통해 路遙가 문학계에서 부상해가는 궤적을 볼 수 있고, 그가 자신의 문학 창작에 의욕도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

26) 張艷茜, 「路遙與『人生』」, 紀實文學, 2013, 2기, 참고.

27) 楊曉帆, 『路遙論』, 162쪽.
相比《人生》路遙在寫作《平凡的世界》時，越來越意識到，與社會慣習關於高下，大小，優劣的價值區分不同，眞正的幸福仍需回到個人的內心世界，建立一個能夠不隨波逐流，自足的心靈的形式。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작품 『人生』

1) 『人生』의 줄거리

『人生』의 주인공 高加林은 농촌 출생으로 현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를 못가서 馬店의 초등학교에서 민판교사(民辦教師)로 근무를 했으나 高家村의 四大隊 서기인 高明樓의 아들 高三星에게 교사 자리를 뺏기고 집으로 돌아온다. 高加林은 자신의 일자리를 불합리하게 뺏어간 高明樓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 실망한 高加林은 농촌에서 劉巧珍에게 고백을 받고 사랑하게 되면서 위안을 얻고,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으며 농사일도 정상적으로 시작했다. 高加林은 劉巧珍과 만나면서 농촌에서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처럼 평생 농사꾼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끔 현성에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상이 낙후되고 폐쇄적인 농촌의 환경이 高加林으로 하여금 더 도시에 갈 생각을 하게 한다. 퇴역한 高加林의 숙부 高玉智가 노동국장이 되어 돌아오자 高加林의 아버지가 농촌에 있는 高加林의 불행한 처지를 말해보지만 高玉智는 도와줄 수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하여 高玉智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馬占勝(이전에 高加林의 교사 자리를 빼앗는 데 가담했었으나)에게 高加林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그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다.

馬占勝의 도움으로 현성에서 통신기자를 하게 된 高加林은 비록 불합리하게 입사했으나 최선을 다해 일하며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의 유명인이 된다. 현성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黃亞萍은 高加林이 현성에 온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지체없이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張克南과 만나고 있었지만 高加林에게 마음이 흔들렸다. 高加林도 고등학교 때부터 黃亞萍과 공통점이 많아 黃亞萍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다. 다시 高加林을 만났으니 黃亞萍은 자신이 高加林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張克南과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바로 高加林에게 고백을 하면서 곧 가족이 더 큰 도시 난징으로 옮겨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한다. 고백을 받은 高加林은 큰 도시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劉巧珍과 黃亞萍을 비교하다가 결국 자기에게는 黃亞萍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劉巧珍과 헤어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소식을 들은 高加林의 아버지와 德順 할아버지가 찾아와 劉巧珍을 버린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劉巧珍은 高加林과 헤어진 후 생활의 기탁이 없으니 줄곧 자신에게 혼담을 넣어오던 馬拴과 결혼을 해버린다. 반대로 張克南은 黃亞萍과 헤어진 후 張克南의 어머니는 아들의 슬픈 표정을 보고 高加林이 불합리하게 취직한 것을 당 위원회 위원에게 고발한다. 高加林의 부당한 입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高加林의 숙부까지 알고 나서 현위서기(縣委書記)에게 高加林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을 받고 돌아온 高加林은 劉巧珍의 결혼 소식만 말고 자신의 해임된 소식까지 듣고 난 후에 현실을 알게 된 그는 黃亞萍과 헤어지고 다시 高家村으로 돌아간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지 않고 위로해주는 것을 보며 감동 받았지만 高加林이 劉巧珍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원망하여서 울고 있다. 이때 德順 할아버지가 高加林 앞에 와서 노동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다만 高加林이 금 같은 劉巧珍이 잃어버린다. 高加林이 다시 농촌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 劉巧珍이 高明樓에게 高加林의 교사 자리를 부탁했다는 말을 들은 高加林은 德順 할아버지의 발밑에 덮쳐 흙을 잡으면서 울었다.

2) 『人生』의 창작 과정과 창작 동기

『人生』의 창작 과정을 보면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알 수 있다. 먼저 작품의 창작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창작 과정

사람들은 路遙가 21일만 소설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목하지만 사실 『人生』은 그렇게 쉽게 쓰이지 않았다. 路遙는 아래와 같이 회상한 바 있다.

> 나는『人生』을 쓰면서 3년을 반복했다. 이 작품은 1981년에 썼지만, 나는 1979년에 쓰기 시작했다. 너무 긴장하게 작업에 들어갔는데, 쓰고 나서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모두 찢어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1980년에 다시 써보았는데 아직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28]

28) 路遙, 「早晨從中午開始, 『答中央廣播電視大學問』」, 204쪽.
我寫『人生』反夏折騰了三年-這作品是1981年寫出的，但我1979年就動筆了。我非常緊張地進入了創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를 보면 『人生』의 창작 과정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

첫 번째, 그것의 많은 영감과 줄거리는 모두 작가 자신의 생활 경험에서 나왔다. 路遙는 청년 시절 자신이 '교차지대'에 놓였던 경험이 『人生』의 高加林에게 삶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高加林이라는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교차지대'에 대해 路遙가 이렇게 설명하였다.

>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의 여러 가지 정태와 느낌은 내게도 마음에도 깊이 각인되어 나의 창작 활동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 내 작품의 제재 범위는 대부분 내가 '도농교차지대'라고 부르는 생활이다.[29]

『人生』 중에 高加林이 농촌과 도시 사이에 갔다 왔다 하는 모습이 바로 路遙가 직접 경험하는 생활의 실제 모습이다. 또한 路遙는 이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셋째 동생인 王天樂의 운명을 바꾸어주었기 때문에 중국 도농의 이원적으로 대립되는 사회 형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후에 소설에서 모두 표현되었다. 즉, 王天樂이 '농촌이라는 관문'을 뛰쳐나오게 도와준 일이 路遙의 『人生』을 더 빨리 완성하게 만들었던 것이다.[30]

당시 이미 『延河』의 편집자였던 路遙는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꾸어 '農裔城籍'작가가 되었으나, 그의 '農裔'의 가족과 일가친척은 여전히 농촌에 있었다. 한편, 그는 집안의 장남이며 가족 중에 현성에서 일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의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 또 한편 그는 延川縣의 큰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나 延川과 淸澗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했다. 그는 둘째 동생 王天雲이 延川縣 농기계국 시공대의 계약직 불도저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過程，但寫成后，我把它撕了，因爲，我很不滿意，盡管当時也有可能發表。我甚至把它從我的記憶中抹掉，再也不愿意想它，1980年我試着又寫了一次，但覺得還不行。

29) 路遙, 「『路遙小說選』 自序」, 北京十月出版社, 2012.
我的生活經歷中最重要的一段就是從農村到城市的這樣一個漫長而反復的過程。這個過程的種種情態與感受，在我身上和心上都留下了深深的印記，因此也明顯地影響了我地創作活動。我的作品的題材範圍，大都是我稱之爲城鄉交叉地帶的生活。

30) 梁向陽, 「新近發現的路遙1980 年前後致谷溪的六封信」, 『新文學史料』, 2013, 3기.
路遙在創作這部小說的過程中, 因帮助其三弟王天樂改變命運 ,故他對我國城鄉二元對立的社會形態有更深人的思考 , 這些思考后來均在小說中得到体現 。也就是說 , 帮助王天樂跳出"農門"的事情催熟了路遙創作的『人生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셋째 동생인 王天樂은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농촌에서 1년간 교사일 하다가 가난한 집안을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와 헤매었다. 당시에 농촌 사람들이 농촌 밖으로 뛰쳐나오는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학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었지만 王天樂은 분명 수능을 치를 만한 실력이 없었다. 또 다른 방법은 석탄 노동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편적 의미의 노동자 모집은 도시 호적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도시 청년들의 지원하지 않고 남은 석탄 노동자 자리만이 농촌 청년들의 것이었다.[31] 이러한 이유로 路遙는 王天樂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1979년 11월부터 1980년 5월까지 반년 동안 路遙가 절친한 친구인 曹古溪에게 6통의 편지를 썼는데, 모두 曹古溪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32]

路遙는 자신이 '紅衛兵'시절 경호했던 당시 延安縣縣委書記 張史潔을 찾아 인맥을 통해 동생의 채용을 도와주려 했다.

『人生』의 高加林은 마치 王天樂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高加林은 王天樂와 같은 행운이 없었다. 高加林은 도시로 나갔다가 나중에 자신의 부정 채용이 고발을 당하여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王天樂은 路遙의 도움으로 1980년 銅川礦務局鴨口煤礦采礦四區의 채탄 노동자로 취직했다가 路遙의 도움으로 기자가 된다. 이에 楊曉帆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 있다.

> 路遙가 동생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민을 알아야 『人生』의 참맛을 읽을 수 있다. 路遙가 蘇聯의 우주인 '加林'의 이름을 따서 高加林을 창조했을 때, 이 '환상을 사랑하는' 농촌 청년은 그와 동생들의 삶에 많은 희망을 걸었다.
> (……)
> 路遙는 소설에서 高加林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맥走后門' 으로 동생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33]

두 번째, 『人生』은 路遙가 자신의 스승 柳靑에게 내준 답안지였다.[34] 路遙는 柳

31) 梁向陽, 「新近發現的路遙1980年前後致谷溪的六封信」, 『新文學史料』, 2013, 3기.
32) 楊曉帆, 『路遙論』, 98~99쪽.
33) 楊曉帆, 『路遙論』, 101~102쪽.
只有了解路遙幫弟弟們解決工作問題的種種煩惱, 才能讀出『人生』的五味雜陳。當路遙依照蘇聯宇航員加加林的名字創作高加林林時, 這個愛幻想 的農村青年, 寄托了許多他與弟弟們的生活憧憬。
(……)
他在小說裏譴責高加林通過不正當手段實現個人追求, 卻不得不在現實中托關系, 走後門。
34) 路遙,『早晨從中午開始』, 59쪽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青을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같은 陝北 동향이기 때문에 路遙는 柳青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路遙가 柳青은 자기의 '문학대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柳青의 현실주의적 창작원칙을 지켰다. 『人生』의 머리말은 柳青의 『創業史』 15장 첫 구절을 인용하며 인생에 대한 선택을 말했다.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생의 길은 멀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몇 걸음, 특히 젊은 시절이다. 사람의 길이란 수많은 갈림길이 있게 마련이다. 몇몇 갈림길, 예를 들면 정치적 갈림길, 사업상의 갈림길, 개인 생활의 갈림길 등은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인생의 한 시기 혹은 인생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5]

『創業史』의 改霞가 도시에 갈지, 아니면 蛤蟆灘에 있을지 고민할 때 柳青은 그 인생의 격언을 애틋하게 썼다. 改霞와 비슷한 처지에서 『人生』의 高加林도 어려운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高加林에 대한 路遙의 애틋한 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路遙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문학대부' 柳青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식 청년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라는 柳青의 고민을 이어갔다.[36] 이러한 이유로 柳青의 『創業史』는 『人生』의 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梁生寶走了改霞的路－重讀路遙『人生』」에서 연구자는 『人生』은 『創業史』의 속편이며, 高加林은 改霞의 길을 이어 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37]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路遙는 창작에서 "柳青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따라 인물과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王大可는 아래와 같이 『人生』과 『創業史』의 관계를 밝혔다.

> "(柳青)은 국가의 전진이란 사고 속에 개인이라는 고리를 고집스레 끼워 넣었다. 즉 개개인이 역사의 흐름에 진정으로 동참했던 것이다. 柳青의 전통을 의식적으로 계승한 路遙의 소설 『人生』에서도 高加林의 문제는 상징성이 강하지만 路遙는 高加林의 진로

35) 路遙,『人生』,머리말.
36) 張高領 ,「"進城"的難題与"顚倒式誤讀" －從『創業史』到『人生』」(『文藝爭鳴』, 2017, 6)참고. 在這個意義上說，路遙引用這段話不僅僅向其文學教柳青致敬，更延續了柳青對農村知識青年如何選擇人生道路的思考。
37) 劉濤, 「梁生寶走了改霞的路－重讀路遙『人生』」, 『文藝報』, 2013, 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제를 거의 개개인의 '도덕'적인 사건으로 처리했다. (괄호는 원문)"[38]

이는 『創業史』를 기초로 하여 『人生』은 路遙 자신의 역사의 발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人生』은 3단계의 '도시 진출기'로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路遙와 동생들의 현실 인생에서의 도시 진출기, 둘째 단계는 소설 『人生』에서의 高加林의 도시 진출기, 셋째 단계는 路遙가『創業史』의 改霞가 자신의 능력으로 도시에 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방법으로 高加林의 도시 진출기를 쓰는 것이다.

(2) 창작 동기

『人生』의 창작 동기는 주로 德順의 입을 통해 표현되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거야……."[39]

"이 산, 이 물, 이 땅이 대대손손 우리를 기른 거야. 이 땅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암! 아무것도 없고말고!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요즘 당의 정책이 좋아져서 하루하루 살기 좋아지고 있어. 농촌도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야. 널 실망시키진 않을 게다! 낙심할 거 없어! 사내대장부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개 신세가 되는 거야…… ."[40]

위 德順의 말은 작가 路遙의 아래 견해와 일치한다.

---

38) 王大可, 「改霞的問題：回看『創業史』」, 『文藝爭鳴』, 2015, 2기.
(柳青) 頑强地在對國家進程的思考中嵌入了'個人」這一環節，每一個個體也眞正地參與了歷史的進程。而在有意識地繼承柳青傳統的路遙的小說《人生》中，雖然高加林的問題同樣具有高度的象征性，但在路遙的處理中，高加林的出路問題幾乎被處理成了一個個人的道德的事件。

39)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38쪽.
"人常說，浮得高，跌得重！" 路遙, 『人生』, 203쪽.

40)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9쪽.
"就是這山，這水，這土地，一代一代養活了我們。沒有這土地，世界上就什麼也不會有！是的，不會有！只要咱們愛勞動，一切都還會好起來的。再說，而今黨的政策也對頭了，現在生活一天天往好變。咱農村往後的前程大著哩，屈不了你的才！娃娃，你不要灰心！一個男子漢，不怕跌跤，就怕跌倒了不往起爬，那就變成個死狗了……" 路遙, 『人生』, 250~25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청년에 대한 사회의 중시를 이끌어내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은 사회 전체가 그들을 돌보고, 모든 면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중국의 미래 이 세대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들을 주목하고 중시해야 한다. 다른 편으로는 현재 사회가 그들의 생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은 생활과 사람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젊었을 때, 인생의 길은 순탄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삶을 올바르게 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41]

위의 德順과 路遙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주인공과 같은 갈등하고 방황하며 좌절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창작 동기는 바로 이 작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1) 路遙,『早晨從中午開始』, 191쪽.
我當初的想法是：我有責任把這樣一種人物寫出來，一方面是要引起社會對這種青年的重視，全社會應該關懷他們，從各個方面去關懷他們，使他們能健康地成長起來，因爲我們整個的國家和未來的事業是要指靠這一代人的，所以我們必須要從現在開始，嚴肅地關註他們，重視這個問題；另一方面從青年自身來說，在目前社會不能全部滿足他們的生活要求時，他們應該正確地對待生活和對待人生，從某種意義上來說，尤其是年輕的時候，人生的道路不可能是一帆風順的，永遠有一個正確對待生活的問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주요 인물 소개

1) 劉巧珍

『人生』에서 劉巧珍은 작가가 칭송하는 농촌 젊은 여성으로, 줄곧 화려하지 않은 필체로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劉巧珍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 劉巧珍은 농촌 여자 같지 않았다. 얼굴이 예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차림새도 촌스럽거나 천박하지 않았다. 녹색 테이크론 바지에 빛바랜 파란 데님 상의를 입고 연분홍 테이크론 셔츠의 커다란 칼라를 밖으로 내어놓아 예쁜 얼굴에 더욱 생기가 넘쳤다.[42]

劉巧珍은 마을의 "2인자" 劉立本의 딸이지만 劉立本은 그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비록 그녀는 무식하지만, 농촌 사람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보통 농촌 사람은 갖기 어려운 품성이 있다. 그녀는 소박하며 평등도 추구하며 문화인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데다 사랑을 추구하는 데는 열렬하고 분방하다.

> 인근 마을 농민들은 그녀의 예쁜 외모만 볼 뿐 형형한 광채를 발하는 그녀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 자신이 생각하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못내 한탄스러웠다.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자신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43]

새로운 시대 개혁·개방의 충격 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에는 새로운 가치 관념이 생겨났는데, 劉巧珍도 전통 사상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가 주선한 혼사를 거

---

42)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29쪽.
劉巧珍看起來根本不像個農村姑娘。漂亮不必說，裝束既不土氣，也不俗氣。草綠的確良褲子，洗得發白的藍勞動布上衣，水紅的確良襯衣的大翻領翻在外邊，使得一張美麗的臉龐顯得異常生動。 路遙, 『人生』, 21쪽.

43)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49쪽.
村前莊後的莊稼人只看見她外表的美，而不能理解她那絢麗的精神光彩。可惜她自己又沒文化，無法接近她認篇更有意思的人。她在有文化的人面前，有一種深刻的自卑感。她常在心裏怨她父親不供她上學。路遙, 『人生』, 3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한 모습에서 그녀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劉巧珍은 교양이 없는 농촌 여성으로서 내면이 다정하며,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남자를 인생의 동반자로 찾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 현대 문화인인 高加林은 자연스레 그녀의 이상적인 짝이 되었다. 劉巧珍은 자신의 동생에게 자기는 비록,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마음 속에 문화인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지식과 문화 수준이 없다는 점에서 高加林과 신분 차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高加林을 짝사랑했다.

> 高加林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가 장차 멀고 높게 날아올라 자신과는 영원히 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사랑을 그만둘 수 없었고 속으로 그를 계속 짝사랑했다. 高加林이 집에 오는 일요일마다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일하러 나가지 않고 집 앞 강가에 나와 高加林의 집 쪽을 흘끔거렸다. 高加林이 마을 앞 연못에 수영을 하러 가면 얼른 광주리를 들고 연못 근처 밭에 가서 돼지풀을 뽑았다. 또 일요일 오후에는 학교로 돌아가는 高加林을 눈으로 배웅하고 高加林이 현성으로 가버리면 그가 다시는 高家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눈시울 적셨다.[44]

劉巧珍이 高加林 앞에 나타났을 때가 바로 高加林이 초라하고 무력할 때였다. 농촌에서 태어난 劉巧珍은 비록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신적으로 남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高加林이 교사 직위를 잃었을 때 자기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언니 앞에서 언니의 시아버지인 高明樓를 욕했다. 반면에 劉巧珍은 高加林이 농민이 된 것을 기뻐한다. 그녀와 高加林 사이의 신분 차이가 사라져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高加林이 만터우를 팔 때, 그를 돕는 것을 기회 삼아 그에게 접근하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했다.

> 劉巧珍에게는 오랫동안 별러 오던 일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정이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
> 그녀는 감정을 터뜨리기로 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다![45]

---

44)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52쪽.
加林上高中時，她盡管知道人家將來肯定要遠走高飛，她永遠不會得到他，但她仍然一往情深，在內心裏愛著他。每當加林星期天回來的時候，她便找借口不出山，坐在她家院子的垃畔上，偷偷地望對面加林家的院子。加林要是到村子前面的水潭去遊泳，她就趕忙提個豬草籃子到水潭附近的地裏去打豬草。星期天下午，她目送著加林出了村子，上縣城去了，她便忍不住眼淚汪汪，感到他再也不回高家村了。
路遙，『人生』，4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劉巧珍의 사랑은 세속의 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 劉巧珍은 사랑의 추구에서 이미 각종 우매하고 낙후된 낡은 전통,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스스로 억누르는 폐쇄적인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

劉巧珍의 감정은 高加林에게 받아들여졌고, 劉巧珍은 양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는 간부와 문화인만 양치하는 시대였는데 劉巧珍이 양치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론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 하지만 劉巧珍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양치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高加林 오빠가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용감하게 할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아무렇지 않았다. 高加林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아낼 수 있었다.[46]

劉巧珍은 부드럽고 순수한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조심스레 키워나갔다. 그녀가 高加林과 밤에 밀회할 때 高加林에 대해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高加林이 밭에서 노동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평생의 고단함으로 高加林의 생활이 즐거움과 가벼움으로 바뀌기를 원했다.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에 劉巧珍은 高加林과 멀어질 줄 알면서도 高加林이 현성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선뜻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기꺼이 高加林의 부모님을 돌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劉巧珍은 高加林에게 이별 통지를 받았다. 비록 高加林이 자신을 저버렸어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던 것은 高加林에 대한 사랑이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황홀한 사랑은 劉巧珍이 자아의식과 자아 가치의 인식을 결핍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랑이 실패할 때 그녀는 더 자비를 베풀면서 심지어 자신을 부정했다.

> 감정의 혼란기가 지나간 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천진난만했

---

45)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49쪽.
對於巧珍來說，她今天的行動是蓄謀已久的。不是一天兩天，而是多少年埋藏在她心中的感情，已經忍無可忍一她要爆發了！否則，她覺得自己簡直活不下去了！ 路遙, 『人生』, 39쪽.

46)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68쪽.
劉巧珍根本不管這些議論，她非刷牙不可！因爲這是親愛的加林哥要她這樣做的啊！癡情的姑娘爲了讓心愛的男人喜歡，任何勇氣都能鼓起來。她根本不管世人的譏笑；她爲了加林的愛情什麼都可以忍受。路遙,『人生』, 56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지! 비극은 운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와 사랑하는 高加林이 너무 달라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현실이 자신에게 내린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했다.[47]

劉巧珍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馬栓 앞에서 자신과 高加林의 차이를 반성하며 현실이 그녀에게 주선해 준 오직 남편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때의 그녀는 더 이상 투지도 없고, 목표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장 전통적인 결혼 방식뿐이었다. 高加林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도 劉巧珍은 언니가 高加林에게 복수하러 가는 것을 막았으며 高明樓에게 교사 자리를 高加林에게 달라고 부탁했다.

劉巧珍은 바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대표적인 전통 여성이다. 그녀는 강인하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문명의 특징이 있는 새로운 생활도 추구한다. 그녀는 비록 사랑의 배신으로 전통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인물이었다.

2) 黃亞萍

黃亞萍은 전형적인 도시 여성이다. 黃亞萍은 江蘇省 출신으로, 아버지는 무장부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녀는 부모에게 더욱 귀중한 존재로서 한몸에 사랑을 받았다.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그녀의 취미는 광범위했고 문학, 음악, 회화, 심지어 국제문제까지 두루 섭렵할 정도로 박학다식했다. 高加林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黃亞萍은 아버지를 따라 현성으로 전학을 왔다.

그녀는 전형적인 남부 여자였으며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또 영리하고 성격이 시원스러우며 천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학 오자마자 전교에서 가장 돋보이는 학생이었다.[48]

47)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1~242쪽.
經過這樣一次感情生活的大動蕩，她才似乎明白了，她在愛情上的追求是多麼天眞！悲劇不是命運造成的，而是她和親愛的加林哥差別太大了。她現在只能接受現實對她的這個宣判、老老實按自己的條件來生活。’ 路遙, 『人生』, 207쪽.

48)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9쪽.
她帶有鮮明的南方姑娘的特點，又經見過世面；那種聰敏·大方和不俗氣，立刻在整個學校都很惹眼了。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黃亞萍은 지식과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도시 여성 특유의 지성미, 요염미로 가득 차 있었다. 전통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마음속의 사랑을 추구하며, 외부의 만류에도 동요하지 않는 성격을 보여준다.

> 그녀는 개인의 행복 추구는 인간의 권리이자 자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바로 나 자신의 것"이므로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포함해서 말이다. 부모님은 장인 장모의 관점에서 사윗감을 바라보지만, 자신은 사랑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49]

黃亞萍은 학교에서 독특한 高加林을 발견한 뒤 반 친구들이 전하는 소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黃亞萍은 현성에서 일을 했고, 高加林은 농촌으로 돌아갔다. 黃亞萍은 비록 성실하고 어수룩한 애인 張克南이 있었지만, 더 차원 높은 정신적인 교류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高加林이 현성에 와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화가 통하는 高加林이 돌아온 사실에 흥분했다.

>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학교를 여러 번 옮겼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알았던 남학생들 중에 高加林처럼 기억에 남는 친구는 없었다. 원래 그녀는 농촌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무시했다. 농촌 아이들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高加林을 알게 된 후 생각이 바뀌었다. 高加林의 성격, 안목, 영민함,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모두 좋았다.[50]

현대적인 여성으로 그녀는 어떻게 하면 高加林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高加林이 꼭 도시에 살고 싶어한다는 것과 '국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路遙, 『人生』, 30쪽.

49)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5쪽.
在她看來，追求個人幸福是一個人的權利和自由，我是我自己的，誰也沒有權力幹涉她的追求，包括至親至愛的父母；他們只是從嶽父嶽母的角度看女婿，而她應該是從愛情的角度看愛人。 路遙, 『人生』, 175쪽.

50)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86쪽.
她長這麼大，跟父親走過好幾個地方上學，所有她認識的男同學，都沒有像加林這樣印象深刻。她原來根本看不起農村來的學生，認爲他們不會有太出色的人。但和加林接觸後，她改變了自己的看法。加林的性格、眼界、聰敏和精神追求都是她很喜歡的。 路遙, 『人生』, 158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모와 지혜 그리고 미래의 발전기회로 高加林의 마음을 제어하며, 高加林을 사랑하기도 하고 귀찮게도 하고 어쩔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黃亞萍은 자신만의 확고한 생활준칙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어쩌면, 그녀에게 생활준칙은 비교법이다. 항상 자신의 발전과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생활과 애인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高加林이 처음 농촌으로 돌아가 농민이 되었을 때, 비록 민판 교사의 직위가 있어라도 黃亞萍은 자신이 농촌의 생활을 못 하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때의 張克南은 그녀에게 현대적인 연애와 물질적 만족을 주었다. 비록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농촌의 高加林 보다 현성 출신인 張克南이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加林이 다시 현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신분이나 출신 조건이 아닌 高加林과 張克南 중에서 정신세계(精神世界)가 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비교하여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은 高加林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가 두려웠했던 전제가 사라진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高加林과 張克南을 그녀의 사랑이라는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張克南은 高加林과 비교도 할 수 없다.[51]

高加林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농민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정신이 없었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몰랐다. 高加林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야 할지 고민되었고, 예견되는 힘겹고 씁쓸한 삶과 사랑 사이에서 늘 이익을 생각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난처해졌다.

> 그녀가 高加林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高加林이 지옥에 떨어져도 그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녀가 오로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면 高加林이 지옥에 빠지면 그녀도 그를 따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
> 모순은 해결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高加林을 사랑하는 것과 高加林이 농민이 되길 바라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다.[52]

---

51)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89쪽.
現在，加林已經參加了工作，那個對她來說非常害怕的前提已經不復存在。在同等的條件下，把加林和克南放在她愛情的天平上稱一下，克南的分量遠遠比不上加林了..... 路遙, 『人生』, 160쪽.

52)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59쪽.
假苦她不去愛高加林，那高加林就是下降了獄也與她無幹；如果她爲了愛情什麼也不顧，那高加林就是下地獄她也不會跟著下去！矛盾是無法統一的。兩個方面她自己認爲都很重要：她愛高加林而又怕他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黃亞萍은 高加林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랑을 선택했지만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두 사람 모두 잃었다.

3) 德順

德順 영감은 착하고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 노인 형상이다. 路遙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으로 德順을 썼는데, 그는 일종의 전통적인 미덕을 보여주었다.

德順 영감은 高加林이 누워있는 곳의 복숭아나무에 의지해 처음 소개되었다. 비록 간단했으나, 그가 어떤 노인인지 알 수 있다. 德順 영감은 자식이 없지만, 그는 마을의 아이들을 바로 자신의 아이로 생각한다. 德順 영감이 심은 복숭아나무를 통해 그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

> 그 복숭아나무는 평생 홀아비로 사는 거순 영감이 심은 것이다. 마음씨 좋은 영감이 복숭아가 다 익기 전에 전부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지금은 잎사귀만 남아 있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지만 선선한 그늘을 드리울 정도는 되었다.[53]

아마 德順 영감에게 이 복숭아가 다 익었으면 어른들에게 뺏겨서 아이들이 얻지 못하거나 익은 후에 따게 되면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 봐 미리 따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특히 高加林은 매우 아끼고 있다.

> 한평생을 홀아비로 산 德順 영감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다. 마을 아이들을 좋아해서 맛있는 게 있으면 아까워서 먹지 못하고 온 마을을 돌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특히 高加林에게는 더 애틋한 정이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高加林은 소학교에 다닐 때 이따금 연필 한 자루 살 돈도 없었다. 그걸 아는 德順 영감이 高加林을 볼 때마다 3마오, 5마오씩 쥐어주곤 했다. 高加林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德順 영감은 현성으로

農民啊！ 路遙, 『人生』, 223쪽.

53)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7쪽.
這顆桃樹是一輩子打光棍的德順老漢的。桃子還沒熟的的時候，好心的老光棍就全摘了分給村裏的娃娃。現在這樹上只留下一些不很茂密的樹葉，倒也能遮一些陰涼。 路遙, 『人生』, 20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농작물을 팔러 갈 때마다 절반쯤 남겨서 高加林의 학교로 가져다주었다.[54]

高加林을 이렇게 아끼는 德順 영감은 高加林이 물집이 터져 피가 흘러도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高加林을 억지로 눌러 앉혀놓고 황토로 지혈해주면서 高加林에게 일할 때 힘을 고르게 하라고 권했고, 다음날부터 쟁기질을 가르쳐주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 한 통을 高加林에게 반쯤 먹이기도 했다.

德順 영감은 마음도 섬세한 노인이다. 高加林과 劉巧珍이 연애했을 때 高加林의 부모님도 몰랐는데 그는 高加林과 劉巧珍의 관계를 눈치채고 함께 현성에 가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高加林의 아버지가 이 일로 괴로워할 때, 德順 영감은 그에게 누가 젊어 본 적이 없냐며 劉巧珍만 동의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德順 영감은 생각이 앞섰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도 정확하여 핵심을 잘 잡는다.

德順 영감은 정 또한 많은 사람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가축을 끌고 만리장성 북쪽으로 소금과 가죽 실어다 주는 일을 하면서 無定河 옆에 있는 휴게소에서 주인의 딸 靈轉과 사귀었다. 劉巧珍이 靈轉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德順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德順 영감이 입에서 한숨이 비어져 나왔다.

“나중에 천진 상인에게 시집갔어. 靈轉은 안 기다리려 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가게 했지……. 천진은 여기서 세상 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만났지! 내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건 밍밍하고 재미가 없어. 냉수 마시는 거랑 다를 게 뭐야?”

“靈轉이 아직 살아있을 거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엔 살아있지! 내 평생 그 여자를 가슴속에 담아뒀으니까…….”[55]

---

54)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77쪽.
德順老漢一輩子打光棍，有一顆極其善良的心。他愛村裏的每一個娃娃。有一點好東西，自己舍不得吃，滿莊轉著給娃娃們手裏塞。尤其是加林，他對這孩子充滿了感情。小時候加林上學，家境不好，有時連買一支鉛筆的錢都沒有，他三毛五毛的常給他。加林在中學上學時，他去縣城裏賣瓜賣果，常留半筐子給他提到學校裏。 路遙, 『人生』, 62쪽.

55)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41쪽.
德順老漢嘆了一口氣：“後來，聽說她讓天津一個買賣人娶走了。她不依，她老子硬讓人家引走了…天津啊，那是到了天盡頭了！從此，我就再也沒見我那心上的人兒！我一輩子也就再不娶媳婦了。唉，娶個不稱心的老婆，就像喝涼水一樣，寡淡無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德順 영감은 애정에 집착하고 무슨 일이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德順은 평생을 홀아비로 살아왔으나 남녀에 대한 애정은 훤히 꿰뚫고 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순박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高加林이 현성에 가서 劉巧珍을 버린다는 것을 알고 나서 高加林의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 설득했다.

"양심을 팔아먹은 놈! 그렇게 착한 劉巧珍을 길에다 버리다니! 죄 받을 거야! 高加林아, 내가 널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자라는 걸 쭉 지켜봤으니 솔직하게 말하마! 어쨌든 넌 흙에서 자란 놈이다. 네 놈의 뿌리는 흙 속에 박혀 있어! 그런데 지금 너는 콩나물이야! 흙 한 톨도 안 묻고 너풀너풀 떠다니고 있어. 네가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구나! 난……너한테 못 할 얘기가 없어! 네 놈이 劉巧珍을 울린 건 결국 너 자신을 해친 거야……"

德順 영감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고 긴 한숨만 푹푹 토해냈다.

(……)

德順 영감이 다시 말을 받았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거야……"56)

高加林이 德順 영감의 말을 들지 않고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德順 영감은 실망했다. 그리고 劉巧珍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혼자 슬퍼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바로 德順 영감이었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늙은 홀아비는 구들의 돗자리 위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劉巧

巧珍說："說不定靈轉現在還活著？"

"我死不了，她就活著！她一輩子都揣在我心裏…" 路遙, 『人生』, 117쪽.

56)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37~238쪽.

"你把良心賣了！加林啊…巧珍那麽個好娃娃，你把人家撂在了半路上！你作孽哩！加林啊，我從小親你，看著你長大的，我掏出心給你說句實話吧！歸根結底。你是咱土裏長出來的一棵苗，你的根應該紮在咱的土裏啊！你現在是個豆芽菜！根上一點土也沒有了，輕飄飄的，不知你上天呀還是入地呀！你…我什麽話都敢對你說哩！你苦了巧珍，到頭來也把你自己了…"老漢說不下去了，閉住眼，一口一口長送氣。

(……)

"人常說，浮得高，跌得重！"德順老漢接著他爸又指教他說，

"不管你到了什麽時候，咱爲人的老根本不能丟啊…" 路遙, 『人生』, 202~20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珍의 불행에 가슴이 아프고 사랑을 배신한 高加林 때문에 괴로웠다.[57]

이를 보면 “德順 영감의 정조, 그의 애증, 그의 정의감, 다음 세대에 대한 그의 책임감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풍부한 성격의 세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58] 그의 생활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는 해임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간 高加林에게 위로가 되었다. 高加林이 후회하면서 울 때 德順영감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본고에서 앞서 인용한 바 있으나, 여기에 다시 가져와 보겠다.)

“쓸데없는 소리! 스물네 살밖에 안 된 놈이 그런 허튼 생각을 해? 네 말대로면 난 진즉에 뒈졌어야지! 나는 일흔이 코앞인데 자식도 없고 한평생 홀아비로 살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가슴이 뜨겁고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나도 이런데 새파랗게 젊은 놈은 말해서 뭐 해! 난 처자식도 없지만 사는 게 재미있다. 사랑도 해봤고 고통도 겪어봤어. 내 손으로 노동해보고 오곡을 길러보고 나무도 심고 길도 깔았지……. 이게 다 사는 재미가 아니고 뭐야? 젊은 애들 말로 행복 말이야, 행복! 넌 몰라. 과일을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 그러냐? 너 어릴 적부터 내가 따주는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 내가 나무를 심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몰라.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이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 먹으며 오래전 마음에 살던 德順 영감이라는 홀아비가 심은 나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 .”

(……)

이 산, 이 물, 이 땅이 대대손손 우리를 기른 거야. 이 땅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암! 아무것도 없고말고!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요즘 당의 정책이 좋아져서 하루하루 살기 좋아지고 있어. 농촌도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야. 널 실망시키진 않을 게다! 낙심할 거 없어! 사내대장부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개 신세가 되는 거야…… .[59]

---

57)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7쪽.
全村只有一個人躺在自己家裏沒出門。這就是德順老漢。重感情的老光棍此刻躺在土炕的光席片上，老淚止不住地流。他爲巧珍地不幸傷心，也爲加林的負情而難過。’ 路遙, 『人生』, 209쪽.

58) 劉成勇, 「『人生』中德順老漢的形象分析」, 『新余學院報』, 2014, 48쪽.

59)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7~288쪽.
“胡說！”德順爺爺一下子站起來，“你才二十四歲，怎麽能有這麽些混賬想法？如果按你這麽說，我早該死了！我，快七十歲的孤老頭子了，無兒無女，一輩子光棍一條。但我還天天心裏熱騰騰的，想多活它幾年！別說你還是個嫩娃娃哩！我雖然沒有妻室兒女，但覺得活著總還是有意思的。我愛過，也痛苦過；我用這兩只手勞動過，種過五谷，栽過樹，修過路…這些難道也不是活得有意思嗎？一拿你們年輕人的詞說叫幸福。幸福！你小子不知道，我把我樹上的果子摘了分給村裏的娃娃們，我心裏可有多…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德順 영감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高加林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치와 계시라 할 수 있다. 작가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마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

> 처음에 나는 德順 영감이라는 인물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작품의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고, 『人生』의 마지막에 그가 요약해 내어 나는 놀랐다.60)

그래서 德順 영감은 경험과 지혜가 많고, 또 독립적인 생명의 가치가 있는 형상이다. 비록 德順 영감은 많이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의미가 있다.

福！不是麼，你小時候也吃過我的多少果子啊！你小子還不知道，我栽下一撥樹，心裏就想，我死了，後世人在那樹上摘著吃果子，他們就會說，這是以前村裏的光棍老漢德順栽下的…”
(……)

“就是這山，這水，這土地，一代一代養活了我們。沒有這土地，世界上就什麼也不會有！是的，不會有！只要咱們愛勞動，一切都還會好起來的。再說，而今黨的政策也對頭了，現在生活一天天往好變。咱農村往後的前程大著哩，屈不了你的才！娃娃，你不要灰心！一個男子漢，不怕跌跤，就怕跌倒了不往起爬，那就變成個死狗了…”路遙，『人生』，250~251쪽.

60) 路遙, 『早晨從中午開始』, 213쪽.
開頭我沒有重視德順老漢這個人物，但最後他成了作品的一個很有光彩的人物。但是我沒想到《人生》最後竟然由他來點題，這是使我很驚訝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人生』과 동시기 이론과 작품의 인물성격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 중국 문학은 '三突出' 이론의 영향을 받아 인물을 단순하게 설정했다. 70년대 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傷痕文學 사조의 등장으로 문학은 완전히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어 상흔문학의 기초 위에서 문학은 다시 반성의 큰 흐름인 反思文學으로 접어들었다. 아래 한 연구자의 언급을 보면 이 당시 문학의 일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 新時期 전에 문학에서 만들어진 인물들은 대부분 평면적인 형상이었는데, 이러한 형상은 1차원적인 구성이었고, 당시 유행했던 '二值判斷'에 부합했다. 이런 판단으로 그 시기 문학에서는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만이 존재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의 중간 영역은 인위적으로 삭제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런 현상이 극심했고, 새로운 시기에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문학 이론과 창작은 여전히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상흔문학, 반사문학, 심지어 개혁문학에 이르기까지 관성적 사고 때문에 이러한 이원(二元)적 창작모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61]

『人生』은 상흔문학, 반사문학, 개혁문학 등이 혼재하던 시기 발표된 작품이나 '三突出' 이론의 한계와 제한을 극복·돌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高加林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三突出' 원칙, 상흔문학과 반사문학의 대표작 중 대표적인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三突出' 이론 인물

1) '三突出' 이론과 인물 성격

61) 劉鳳芹, 「圓形人物的塑造：路遙創作論」, 山東菏澤學院中文系, 『山花』, 2009, 4기.
新時期以前的文學中塑造的人物大多數是扁平形象，這些扁平形象多是一維構成，符合當時流行的'二值判斷'，這種判斷使得那段時期的文學裏只有兩種人，要麽好人，要麽壞人，好人與壞人之間的中間區被人爲的刪除了。文革時期這種現象極爲嚴重，卽使到了新時期，中國雖然在政治上解放了，但是文學理論與創作仍然受到嚴重的限製，由於慣性思維，一時很難從這種二元創作模式中抽身而出，傷痕文學，反思文學，甚至是改革文學都不同程度地延續著這種模式判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三突出’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형성된 일종의 ‘極左’ 문예 창작이론이다. ‘모든 인물에서 긍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에서 영웅적 인물, 영웅적 인물에서 주요 영웅적 인물’이라는 3가지를 창작할 것을 요구하는 이론이다.

> 문화대혁명 때 江青의 개입으로 문예 분야는 ‘左傾’ 사상이 난무하는 중대 재난지대가 되었다. 江青은 1966년 2월「林彪 동지가 江青 동지에게 요청한 부대문예공작 좌담회 주요 내용(林彪同誌委托江青同誌召開的部隊文藝工作座談會紀要)」에서 체계적인 ‘左傾’ 문예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문예 혁명을 전개한 지도 사상이 되었다. 훗날 혁명적 모범극이 등장하면서 이 문예 이론은 또 한 단계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은 三突出 문예 창작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 ‘三突出’의 문예 창작이론은 거의 모든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예 창작에 영향을 끼치거나 지배함으로써 이는 특정 시기의 대표적인 ‘左傾’ 문예 이론이 되었다.[62]

‘三突出’ 원칙에 따라 창작한 작품들은 혁명적 모범극이 주된 것이었으며 사회, 집단을 중심으로 민족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영웅주의 정신을 말한다. 이런 영웅주의는 민족을 자기 책임으로 삼는 집단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路遙는 『人生』의 창작 취지가 바로 문화대혁명 문학의 이런 ‘高, 大, 全’의 완벽주의 인물을 타파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路遙가 어떻게 영웅주의를 깨고 개인주의를 만들었는지 高加林의 성격을 통해 잘 드러난다.

2. 傷痕文學 대표작품 인물

1) 상흔문학과 「班主任」

62) 彭厚文, 「文革時期三突出的文藝創作理論述論」, 湖南師範大, 『襄樊學院學報』, 2012, 3기.
文革時期，由於江青的插手，文藝領域成爲左傾思想泛濫的重災區。1966年2月，江青在<林彪同誌委托江青同誌召開的部隊文藝工作座談會紀要>中，就提出了一套系統的左傾文藝理論，這套文藝理論成爲文革時期開展文藝革命的指導思想。後來，隨著革命樣板戲的出籠，這套文藝理論又得到了進一步的發展，這種發展主要表現在形成了三突出的文藝創作理論。三突出的文藝創作理論影響和支配了幾乎整個文革時期的文藝創作，成爲這一特定時代具有標誌性的左傾文藝理論。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76년 毛澤東이 사망한 후 1977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1기 당(党) 중앙 전체회의에서 '4인방'분쇄로 문화대혁명은 종결되었다. '4인방'에 대한 비판은 10년 문화대혁명의 큰 상처를 건드렸고, 문예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한 문예사조가 나타났다. 상흔 문학은 바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새로운 시기의 문학적 사조이다.

상흔 문학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문화대혁명이 주는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흔 문학은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말하면서도 상흔 비극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고소와 비판으로 일관한다. 애환과 환희의 이야기로, 또는 피로 범벅이 된 장면으로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들춰내어 10년 동안 쌓인 큰 아픔과 원망을 풀고, 10년에 걸친 대 동란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상처에 대해 강하게 호소하며, 기승을 부리는 '極左' 노선을 맹비난하게 된다.

1977년 11월 『人民文學』에 劉心武의 단편 소설 「班主任」이 발표되었는데, 문화대혁명이 청소년 영혼에 끼친 정신적 내상을 고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班主任」은 상흔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작품은 중3 담임인 張俊石이 불량학생 宋寶琦의 학교 복귀를 원했던 일로 인해 발생한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다룬다. 그러나 막상 접촉해 보니 宋寶琦 같은 나쁜 학생이나 謝慧敏 같은 좋은 학생 모두 '4인방'의 생각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張俊石은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하한다.

2) 張俊石의 성격

문화대혁명문학에 비하면 상흔문학 초기 대표작 「班主任」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완전한 혁신에는 이르지 못했다. "路遙가 말한 것처럼 劉心武의 전의 창작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63]

소설 「班主任」에서 張俊石은 남을 생각해주는 헌신적인 교사이다. 그는 평범하지만, 가치관은 평범하지 않다. 그의 이타주의적 성향은 자신의 앞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알면서도 불량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보인다.

그 누가 불량배와 사귀고 매일 함께 지내기를 원하겠는가? 그 누구도 분명 원치 않을

63) 焦海民, <路遙1991年12月在西北大學的演講整理>, 『當代』, 2021, 10기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이고 심지어는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느냐고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광명중학교 당지부 사무실에서 검고 깡마른 지부 서기 老曹가 중3 담임인 張俊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장 선생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1분 정도 심각하게 고민한 뒤 "그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64]

얼핏 보기에 이게 간단한 일 같으나, 문화대혁명이 끝난 초기에 4인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張俊石의 동료인 윤 선생은 張俊石의 처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불량학생을 받아들이면 학급 성적이 나빠지고, 심지어 자신의 앞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야채시장의 서열 4위 '菜市口老四"라며장 선생님의 행위를 반대했다.[65]

그럼에도 장 선생은 宋寶琦를 경찰서에 돌려보낼 수도 없고, 원래 학교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그는 宋寶琦의 담임교사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宋寶琦뿐만 아니라 4인방의 핍박을 받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했다.

張俊石은 부정적인 면은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는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데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결과를 두려워 하지 않는 의지가 강한 모범적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완전무결한 인물은 현실생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인물의 완전무결함은 당시에는 환영받는 요인일 수 있었으나, 지금 보기에는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인물의 한계는 상흔문학 전체의 한계로 연결된다.

---

64) 劉心武, 「班主任」,https://www.rain8.com/wenzhang/2232-2.html.
你願意結識一個小流氓，並且每天同他相處嗎？我想，你肯定不願意，甚至會嗔怪我何以提出這麼一個荒唐的問題。
但是，在光明中學黨支部辦公室裏，當黑瘦而結實的支部書記老曹，用信任的眼光望著初三 (3) 班班主任張俊石老師，換一種方式向他提出這個問題時，張老師並不以爲古怪荒唐。但他只是極其嚴肅地考慮了一分鐘左右，便斷然回答說："好吧！我願意認識認識他……"

65) 劉心武, 「班主任」.
現在,謝惠敏找到張老師。向他匯報說:"班上同學都知道宋寶琦要來了，有的男生說他原來是什麼'菜市口老四'，特別厲害；有些女生害怕了，說是明天宋寶琦眞來，她們就不上學了。"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反思文學 대표작품 인물

1) 반사문학과 「李順大造屋」

반사문학은 상흔 문학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것으로, 주로 문화대혁명의 '極左' 주의가 몰고 온 재앙과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문학을 말한다. 상흔문학이 '정(情)'을 미학적 특징으로 한다면, 반사문학은 '사(思)'를 미학적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상흔문학이 아직도 가위눌린 듯한 과거에 젖어 있을 때 철학적 역사적 성향이 가미된 문학으로서 급부상했다.

> 반사문학의 의의는 건국 후 17년 역사의 반영 뿐 아니라 그 예술적 경향에 나타난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상흔 문학이 장면과 정서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반사문학은 문학적 시야가 넓어지고 역사의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이성적인 사고에 더 몰두한다. 이로 인해 반사문학에는 역사적 미학과 철학적 미학의 특징이 겸비되어 있다.[67]

高曉聲의 「李順大造屋」은 『雨花』1979년 7기에 발표돼 그해 우수 단편소설상을 수상했다. 李順大는 陳家村의 가난한 한 사람으로 해방 이후 땅을 분양받았으나 집이 없어 세 칸짜리 집을 짓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이다. 단순한 목표로 보이나 30년 가까이 걸린 기나긴 분투였다.

---

66) 熊忠武, 『再論傷痕文學, 反思文學的文學史意義』,湖北第二師範學院文學院,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2009.

67) 熊忠武, 『再論傷痕文學, 反思文學的文學史意義』,湖北第二師範學院文學院,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2009.
所謂反思文學, 不僅在於文學作品內容以反映建國後十七年這段歷史爲主, 而且在於其藝術品味所體現出的那種沈思歷史的反思格調。與傷痕文學重場景、重情緒不一樣, 反思文學視野更開闊, 更關註歷史的過程, 更傾心於理性的思考, 這使之具有一種歷史哲學的美學特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李順大의 성격

高曉聲은 路遙처럼 농민의 생존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민의 민생을 주제로 하여 창작한다. 路遙의 『人生』이 농촌의 호적제도가 농촌의 지식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린 것이라면, 高曉聲의 「李順大造屋」은 중국의 주택제도가 농민생활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것이다.

李順大는 집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농촌 사람이었다. 농민으로서의 근면, 강인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李順大의 주된 성격은 그의 자아 상실, 경직된 노예의식이다.

> 그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가난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넝마주이 여인을 우연한 기회에 아내로 삼고 아들을 뒀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다. 그의 주된 정서는 무기력함과 비통함, 절망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반성하고 따져보진 않고 바꿀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즉 李順大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몽매한 생존상태와 혼돈의 정신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68]

또한, 그는 노예근성의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니 따라갈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때 삶의 방향이 없어진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 李順大는 추종파가 되어도 진심으로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로는 추종할 수 없었다. 추종하려 해도 동서남북에서 누루나 '나만 옳다!'고 외치지 누구를 추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 그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69]

---

68) 楊丹丹, 「農民國民性的想象与塑造－重讀高曉聲的「李順大造屋」」, 海南師范大學社會科學, 2012, 6기.
他的父母和兄弟姐妹被貧窮奪去了生命，偶然的一次撿到了一個拾破爛的女人做了自己的妻子，並且有了一個兒子,但生活並沒有因此而得到改善，仍然每日在貧窮、饑餓中掙紮； 從他的主體情緒體認而言，他感受到了生活的無助、悲慟和絶望，但他並沒有對之所以如此進行反思和追問，而是認爲這是一種無法改變的宿命，也就是說，李順大還處於不覺醒的、蒙昧的生存狀態和混沌的精神狀態之中。

69) 高曉聲, 『李順大造屋』,https://www.vrrw.net/wx/43694.html?ivk_sa=1024320u
在通常情況下,李順大覺得自己做一個跟跟派,也還勝任,眞心實意,感情上毫不勉强。可是文化大革命開始以後,他就跟不上了。要想跟也不知道去跟誰,東南西北都有人在喊:「唯我正確!」究竟誰對誰錯,誰好誰壞,誰眞誰假,誰紅誰黑,他頭腦裏轟轟響,亂了套,只得蹲下來,賴著不跟了。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李順大의 생각에는 자신과 당은 정신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적인 괴리와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스스로 국가가 인정하는 기준의 도덕화된 개체이자 모범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高加林의 성격 분석

먼저 高加林의 성격을 거칠게나마 개괄해보자. 당시 문학이론의 주류였던 '三突出' 이론의 원칙대로라면 가난하고 낙후된 농촌 高家村에서 高加林은 극소수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마을을 이끌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영웅인물' 혹은 '중요한 영웅인물'이 되어야 했다. 독자들 역시 당시 작품들을 봤다면, 高加林의 성격이 '중요한 영웅인물'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갈 것이라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路遙는 高加林을 高家村의 무기력한 소인물일 뿐, 일터의 상실과 가정의 빈곤에 시달리며,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는 인물로 그려냈다. 어느 비평가의 다음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 그의 개인적인 소망은 천백만 군중들이 종사하고 있는 위대한 사업에서 떠나있다.
> 사회적 분업에 대한 그의 인식은 줄곧 잘 못 되어있다.
> 개인의 소망이 사회적 분업과 모순될 때 청년은 즐겁게 사회적 분업에 복종해야 한다.
> 그는 낙후된 농촌 개조라는 임무를 평생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70]

위의 평가는 당시 유행하던 문학이론과 문학적 분위기, 가치관 등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人生』과 高加林의 시대를 뛰어넘는, 당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난 우수함과 독특함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高加林은 "三突出"에 강조하는 이런 영웅주의에 어울리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高加林이 기자로 입성한 후 첫 임무로 홍수 방지 전선에 나섰을 때, 그는 자신의 모험심과 '영웅주의'의 품격을 드디어 보여줄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

70) 曹錦清, 「一個孤獨的奮鬥者形象-談『人生』中的高加林」, 『文匯報』, 1982, 10기. 본고에서는 『路遙論』에서 재인용, 131쪽.
'他對個人願望的追求, 離開了千百萬群衆正在從事的偉大事業', '他在對如何對待社會分工問題是一貫具有的錯誤認識', '當個人願望與社會分工發生矛盾時, 青年應該愉快地服從社會分工。' '他始終沒有把改造落後農村的任務當作終身的光榮使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기자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영예로운 이유는 두려움을 모르는 희생정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격렬한 전쟁터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적진으로 침투한 기자들이 막 점령해낸 진지에서 전신으로 보낸 기사들을 보았다. 그 얼마나 아름답던지![71]

그러나 그의 영웅주의는 '三突出'의 영웅이 아니었다. 이는 80년대 초의 평가와 상반되는 것으로, 최근의 한 연구물을 통해 알 수 있다. 楊曉帆은 아래와 같이 高加林을 평가했다.

> 高加林이 『紅旗譜』의 영웅을 모방해서 항일전쟁시기의 이상주의적인 행동양식에 따라 기사를 썼을 때 그가 이해하고 있던 영광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추구일 뿐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감각적인 체험이었지 구체적인 실천이 아니었던 것이다.[72]

위의 평가대로, 개인의 명리에 입각한 그의 행보는 사회주의 미학의 집단주의적 요구에서 벗어나 대도시를 향해 자신의 개인적 미를 추구하는 그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더욱 잘 보여준다.

그리고 張俊石의 헌신정신에 비하면 高加林은 이기심이 더 두드러진다. 李順大의 자아상실, 경직된 노예의식에 비하면 같은 농촌 출신인 高加林은 반대로 자아의식과 반항의식이 강하다. 그는 개체로서 자신이 유능한 청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李順大와 다르게 자신의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자존과 반항은 모두 자아의식의 표현이다.

高加林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1)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76쪽.
他盡管一天記者也沒當，但深刻理解這個行業的光榮就在於他所要求的無畏的獻身精神。他看過一些資料，知道在激烈的戰場上，許多記者都是和突擊隊員一起沖鋒-就在剛攻克的陣地上發出電訊稿。多美！ 路遙, 『人生』, 149쪽.

72) 楊曉帆, 『路遙論』, 131쪽.
當高加林襲用戰爭年代的理想主義行爲模式， 仿照『紅旗譜』的英雄形象創造通訊稿時， 他所體會到的光榮更多地停留在對形式而非內容的追求上, 他需要一種對獻身精神的感覺體驗， 卻又沒有爲誰獻身的具體的實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자존과 허영

高加林은 농촌 출신이지만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상교육을 받아 흙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런 문명적 현대의식은 그에게 남부럽지 않은 자존감의 원천이었다.

>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변변한 재주도 없는 아버지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공부시킨 덕분에 그는 몸에 밴 진흙 냄새를 거의 털어냈다. 그에게는 남들이 말하는 지식인의 고상함이 있었다.[73]

그래서 高明樓의 아들 三星이 高加林의 교사 자리를 뺏어갈 때 高加林의 자존심이 타올랐다. 高加林은 원래 다른 마을사람들처럼 高明樓를 존중하지 않았던 차에, 그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알게 되었다. 三星은 고등학교에 갈 때조차도 뒷배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高加林을 밀어내고 민판교사가 되었다. 능력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자신을 밀어내고 교사가 된 것을 高加林은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했다.

> 강렬한 복수심에 어금니를 악물었다. 불쑥 오기가 치밀었다. 만일 高明樓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농민으로 살아야 할 운명인 거라면 다 체념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 것이다! 하지만 高家村에 高明樓가 있는 한 반드시 高明樓보다 더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高明樓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려면 高家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곳에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는 정신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高明樓와 겨뤄보기로 결심했다![74]

교사 일을 못 하는 高加林은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高加林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민판교사일을 시작하여 농사를 거의 못 하는

---

73)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쪽.
他雖然出身寒門，但他沒本身的父親用勞動換來的錢供養他上學，已經把他身上的泥土味沖洗的差不多了。他已經有了一般人們所說的知識分子的清高。 路遙, 『人生』, 17쪽.

74)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25쪽.
一種强烈的心理上的報復情緒使他忍不住咬牙切齒。他突然産生了這樣的思想：假若沒有高明樓，命運如果讓他當農民，他也許會死心塌地在土地上生活一輩子！可是現在，只要高家村有高明樓，他就非要比他更有出息不可！要比高明樓他們强，非得離開高家村不行！這裏很難比過他們！他決心要在精神上，要在社會的面前，和高明樓他們比個一高二低！ 路遙, 『人生』, 18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태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그가 지식인이라서 농사의 고초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한다. 高加林은 남의 생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자신도 힘든 농사를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 있었다. 그는 '마을 농부들이 훌륭한 농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끈질긴 근성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75]

또한, 高加林의 자존심은 단순하고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상호모순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자존심이 과하면 허영심으로 변한다. 高加林은 자존심의 한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허영심을 드러낸다. 高加林은 德順 영감과 현성에 대변을 가지러 갈 때 일부러 행인이 별로 없는 밤에 가면서도 지인이나 동창을 만날까 봐 조심스레 숨어다닌다. 그리고 高加林은 동창 黃亞萍이 일하는 직장에 대변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진실하지만, 그의 허영심도 무시할 수 없다. 高加林은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농촌 가정 출신으로 마을에서 할당된 일, 즉 대변을 준비하는 일 등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대변 작업을 하다 張克南의 어머니를 만나고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못 한다. 심지어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웠다.

> 그때 高加林이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맙소사, 그 여자가 바로 張克南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
> 그녀에게서 열 몇 발자국쯤 떨어져 있지만 張克南의 어머니라는 걸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두손을 불안하게 비벼댔다. 어쨌든 張克南의 어머니와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난처한 일이 다 있을까!
>
> '어쩌지? 사과할까?
>
> 하지만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
> '미안하다고 할까?'[76]

---

75)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79쪽.
他讓所有的莊稼人看見：他們衡量一個優秀莊稼人最重要的品質-吃苦精神，他高加林也具備。
路遙, 『人生』, 64쪽.

76)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48~149쪽.
高加林猛地停住了脚步，立刻感到惶愧不安了：天啊，這婦女竟然是張克南她媽！
他離她十幾步遠，已淸楚地認出是她。他一下子不知如何是好了，前不好前，後不好後，兩只手慌亂地扣起了手指頭。不論怎麼樣，他不能和克南他媽吵嘴呀!這事太叫人尷尬了！他想：怎麼辦呀？給他道個歉？可他又沒惹她！要不說個對不起? 路遙, 『人生』, 126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금 高加林은 허름한 옷에 온통 대변으로 칠갑을 한 데다가 학생 때의 하얗던 얼굴도 거칠어져 이제는 영락없는 농사꾼으로 보여 張克南의 어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도 못 하는 것 같다. 張克南의 어머니에게 농촌 사람은 신분도 지위도 없는 시골뜨기(鄉巴佬)여서 현성에 와서 일하는 시골뜨기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이 高加林의 자존심을 불러일으킨다.

> 高加林의 마음속에도 횃불이 타올랐다. 똥수레를 길가에 세웠다. 눈물이 핑 돌아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요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
> "나는 왜 이곳에 와야만 하지?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는 내가 여기 사는 젊은이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하느냐고!"77)

그러나 張克南의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한 후에 高加林은 그녀의 심한 말에 대해서 매섭게 반박하였다. 농촌 사람에 대한 張克南의 어머니의 태도를 통해 80년대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 방식과 경제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張克南의 어머니와 같이 농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고생스럽게 농사를 하는 농촌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高加林의 자존심과 도시로 가려는 욕망은 더욱 불타올랐다.

또한, 高加林이 가정을 위해 도시로 나가 만터우(중국식 빵)를 팔게 된 사건을 살펴보자. 그 당시에 만터우를 팔려면 소리쳐서 손님을 끌어야 했는데, 高加林은 자신의 처지에 아직은 적응하지 못해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 그는 부끄러워서 미리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연습하고 심지어 장에 간 것을 후회했다. 그때의 농민들에게 장에 가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가볍고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농민들로서는 시골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나 高加林은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 자신이 정말로 시골뜨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앞서거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77)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50~151쪽.
高加林的心中也燃燒著火焰。他把糞車子拉在路邊停下來，眼裏轉著淚花子，望著悄然寂靜的城市，心裏說：我非要到這裏來不不可！我有文化，有知識，我比這裏生活的年輕人哪一點差？我爲什麼要受這樣的屈辱呢？ 路遙, 『人生』, 12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한때 말쑥한 교사였던 그가 이제는 늙은 시골아낙처럼 만터우를 팔러 장에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는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78]

특히 高加林이 현성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농민의 신분으로 현성에서 동창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지금 만터우를 팔고 있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高加林이 현성에 갈 때도 조심했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성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갔다.

그런데 버스터미널 대합실 앞에 길을 건너고 있던 그의 얼굴에서 갑자기 핏기가 싹 가시더니 다시 창백했던 얼굴이 또 금세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굴로 치받쳐 올라온 것 같았다. 대합실 앞에 문 앞에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黃亞萍과 張克南이 서 있었던 것이다. 숨을 겨를도 없었다. 그들도 이미 高加林을 보고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만터우 광주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張克南과 黃亞萍이 어느새 그의 바로 앞까지 왔다. 그는 하릴없이 광주리를 들지 않은 손을 내밀어 克南과 악수를 했다. 광주리를 들고 어딜 가느냐는 두 친구의 물음에는 성 남쪽의 친척집에 간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79]

(……)

“담배나 술 같은 게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최대한 도와줄게. 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시골 사람들은 뭘 사려 해도 쉽지가 않잖아!”

張克南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高加林은 자격지심 탓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張克南이 우쭐해하며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들렸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高加林은 요즘 눈에 보이는 건 뭐든 멸시하는 심리가 있었다. 그가 단소 고까운 어투로 톡 내뱉었다.

“살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어떻게 감히 동창에게 신세를 지겠어?”[80]

---

78)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2쪽.
他感到自己突然變成一個眞正的鄉巴佬了。他覺得公路上前前後後的人都朝他看。他，一個曾經是瀟瀟灑灑地教師，現在卻像一個農村老太婆一樣，上集賣蒸饃去了！他的心難受得像無數蟲子在咬著。 路遙，『人生』, 24쪽.

79)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5~36쪽.
當他路過汽車站候車室外面的馬路時，臉刷一下白了一白了的臉很快又變得通紅。他感到全身的血一下都向臉上湧上來了他猛然看見他高中時的同班同學黃亞萍和張克南正站在候車室門口。躲是來不及了，他倆顯然也看見了他，已經先後向他走過來了。
他倆問他提個籃子幹啥去呀？他卽興撒了個謊，說去城南一個親戚家裏走一趟。 路遙，『人生』, 27쪽.

80)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시대에 高加林같은 농촌 사람에게 현성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高加林은 현성에 있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지식 청년이고 심지어 張克南보다 교양수준이 더 높았다.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못한 처지를 감추기 위해서, 강한 자존심에 그는 거짓말을 하고, 점잖지 않은 말투로 말을 걸어야만 했다. 겉으로는 자존심을 지키는 듯한 행동이지만 속으로는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허영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로 자존심의 뒤편에 숨겨진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다. 張克南이든 그의 어머니든 이들 현성 사람은 高加林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 특정한 환경 속에서 그의 허영심이 극도로 팽배해졌다.

비록 高加林의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영예를 위해 과장된 그의 희생정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큰일을 하여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며 자기표현의 욕망이 강하다.

그의 "要求"와 다친 후의 "愉快함"을 통해 표현되는 용감함과 강인함은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면 그가 이 상처를 그의 영광스런 희생의 표시로 여김을 알 수 있다.

> 高加林은 老景을 만류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다.
>
> (……)
>
> 그는 열정적으로 취재에 집중하고 민첩하게 행동했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할 용의도 있었다.
>
> (……)
>
> 언제 부딪혔는지도 모르게 다친 다리는 뼛속까지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의 희열을 점점 부추길 뿐이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는 이 순간 진정으로 신문기자가 된 것 같았다.[81]

"要買什麽煙酒一類的東西，你來，我盡量給你想辦法。我這人沒其他能耐，就能辦這麽些具體事。唉，現在鄉下人買一點東西眞難!"

克南對他說。盡管張克南這些話都是眞誠的，但高加林由於他自己的地位對這些話卻敏感了。他覺得張克南這些話是在誇耀自己的優越感。他的自尊心太强了，因此精神立刻處於一種藐視一切的狀態，稍有點不客氣地說："要買我想其他辦法，不敢給老同學添麻煩！" 路遙 『人生』, 29쪽.

81)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75~176쪽.

加林不讓老景去，而要求老景讓他去。

(……)

他在這種時候，精力充沛，精神集中，動作靈敏，思路淸晰，一刹那間需要犧牲什麽，他就會獻出什麽。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高加林은 그의 성공을 즐기고 자존심도 충족되었다. 그의 성공은 농촌에 있는 애인 劉巧珍과 공유할 수 있는 기쁜 일임에도 高加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劉巧珍이 高加林을 보러 현성에 오자 그는 기뻐하기보다 당혹스러워 했다. 高加林은 농촌에서 온 劉巧珍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서 자신이 창피를 당할까 걱정했던 것이다. 高加林은 현성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劉巧珍이 개털요를 가져다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高加林의 말을 통해 그가 마음속으로 농촌 사람과 선을 긋고 싶으며 점점 현성 사람들과 동화(同化)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개털요와 마을에서 발생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성 사람들이 그가 농촌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高加林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劉巧珍이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高加林이 황급히 그녀를 떼어냈다.

“여긴 밭이 아니야! 상사가 바로 옆방에 계셔…… 우선 의자에 앉아. 물 한 잔 줄게.”

高加林이 잔에 물을 따랐다.

劉巧珍은 앉지 않고 애틋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원망했다.

“떠나더니 한 번도 안 오네요. 오빠 보려고 몇 번이나 왔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취재하러 갔다고……”

“많이 바빴어!”

高加林이 물잔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마시라고 했지만 劉巧珍은 마시지 않고 高加林의 침대를 만져보고 이불을 끌어안고 요를 만지작거리면서 중얼거렸다.

“이불이 너무 얇네. 새 솜을 더 넣어줄게요. 요 밑에 있는 암면펠트도 못쓰겠어요. 우리 집 개털요를 가져다줄게요 ”

“북슬북슬한 개털요를 현위원회 기관에서 쓰면 놀림거리가 될거야!”

“개털이 따뜻한데……”

高加林이 잘라 말했다.

“안 추우니까 절대로 가져오지 마!”

高加林의 굳은 표정에 劉巧珍은 더 이상 개털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82]

脚不知道什麼時候碰破了，連骨頭都感到生疼。但所有的一切反而增加了他的愉快心情-這絶不是誇大的說法！眞的，高加林此刻感到他像眞正的新聞記者了。 路遙, 『人生』, 148~149쪽.

82)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0쪽.

一進加林的辦公室，巧珍就向他懷裏撲來加林趕忙把她推開說:“這不是在莊稼地裏！我的領導就住在隔壁.....你先坐在椅子上，我給你倒一杯水。”他說著就去取水杯。

巧珍沒有坐，一直親熱地看著她親愛的人，委屈地說：“你走了，再也不回來……我已經到城裏找了你幾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高加林의 입성(入城) 전후의 성격은 변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실체에 가까워진 것 혹은 그 실체가 더 드러난 것이다. 高加林이 현성에 가기 전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의감이 강하여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민으로서 불공평함을 느꼈었다. 그러나 그가 현성에 간 후 자신의 허영심은 더 많이 표현되며 농촌의 사람과 일에도 무관심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2. 반항과 타협

1) 무지에 대한 반항과 타협

지식인으로서 高加林이 가장 반항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농촌의 낙후와 무지였다. 80년대 농촌의 전통문화에서 "과학"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농촌 사람들의 행위에서 과학의 그림자도 없었고 그에 대한 인지조차 없었다. 高加林은 지식인으로서 "우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도록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을 보니 (모두들 매일 이런 물을 마시고 이런 물로 밥을 짓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더 착잡했다."[83]

그래서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과 상의 없이 스스로 표백분을 뿌렸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나서 高加林이 우물안에 약이나 세제를 뿌렸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설명을 해줘도 과학적인 원리를 믿지 않았다.

回，人家都說你下鄉去了....."
"我確實忙！"加林一邊說，一邊把水杯放在辦公桌上，讓巧珍喝。
巧珍沒喝，過去在他床鋪上摸摸，又揣揣被子，捏捏褥子，嘴裏嘮叨著："被子太薄了，罷了我給你絮一點新棉花；褥子下面光氈也不行，我把我們家那張狗皮褥子給你拿來……"
"哎呀，"加林說，"狗皮褥子掂到這縣委機關，毛烘烘的，人家笑話哩!"
"狗皮暖和……"
"我不冷！你千萬不要拿來！"加林有點嚴厲地說。' 路遙，『人生』, 170쪽.

83)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17쪽.
他又看見水井臟成這樣也沒人管（大家年年月月就喝這樣的水，拿這樣的水做飯），心裏更不舒暢了。
路遙，『人生』, 9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맙소사! 빨래세제든 약이든 어떻게 함부로 우물에다 뿌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高玉德의 아들놈이 마을 사람들을 깡그리 죽이려고 했다며 고래고래 욕을 했다."[84]

高加林이 이 소식을 듣고 설명해주기 위해 나가려 하자 그의 부모가 한사코 그를 말렸다. 어떻게 하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고 부모까지 자신을 막아서자 그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 高加林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여 상의 없이 우물에 표백제를 푼 것이었다. 그러나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않고 마을 간부의 말만 믿었다. 우매함이 과학을 눌러버렸고, 高加林은 이런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반항심이 커졌다.

이런 모든 상황이 그를 침울하고 괴롭게 했다. 현대 문명의 바람이 언제쯤 이 낙후되고 폐쇄된 곳까지 불어올 것인가.[85]

마을 사람들의 과학과 문명에 대한 무지한 현상을 보면 반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高加林은 타협할 수밖에 없고 농촌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졌다.

2) 不正에 대한 반항과 타협

高加林이 교사 자리를 빼앗긴 후, 그의 부모는 高明樓를 원망했다. 부모는 구세대 농민으로서 농촌에서는 감히 간부의 미움을 사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반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高加林의 태도는 그의 부모와 다른데, 부모와 그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그의 내면의 강렬한 반항 정신이 두드러진다.

高加林은 온몸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져서는 코에서 뜨꺼운 김을 훙훙 내뿜었다. 부

84) 허유영,『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25쪽.
天老子呀！不管是洗衣服還是藥，怎能隨便給水井裏放呢？所有人都用粗話咒罵：高玉德的嫩老子不要這一村人命了！ 路遙, 『人生』,103쪽.

85)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19쪽.
所有這一切，使他感到沈重和痛苦：現代文明的風啊，你什麽時候才能吹到這落後閉塞的地方?
路遙, 『人生』, 98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모의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느니 그 개자식이랑 싸워보고 죽는 게 나아요! 토끼도 급하면 이빨로 무는데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에요? 되든 안 되든 고발할 거예요!”

高加林이 늙은 팔 네 개에 붙잡힌 두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힘껏 붙들었다. 두 노인이 울며불며 애원했다. 어머니는 거의 바닥에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아들을 말렸다.[86]

그러나 高加林에게는 반항과 타협이 공존했다. 高加林은 자신이 피해자일 때는 부당한 수단에 대해 정색을 하며 반항했고, 수혜자가 되자 아무 반항 없이 혜택을 받았다. 高加林은 숙부의 부하 馬占勝의 도움으로 기자가 되었을 때 원칙도 없이 타협했고, 심지어 자기 타협을 위한 정당한 명분까지 찾아낸다.

오늘의 모든 것이 馬占勝 덕분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강직한 성격의 숙부는 高加林에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숙부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해주었다. 高加林은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듯한 변화를 경험하며 소위 뒷문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앞문보다 뒷문의 위력이 훨씬 막강했다! 자신이 ‘뒷문’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비리 척결이 과제가 아닌가!

하지만 금세 생각이 바뀌었다. 어차피 적발되는 건 몇 안 되니까 말이다. 馬占勝의 말을 빌리자면 비린내 안 나는 고양이가 어디 있을까! 馬占勝은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래서 高加林은 가급적 나쁜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진심이었다. 가끔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당의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당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마음먹으며 ‘아예 내년에는 입당신청서를 써야겠다!’라고 비장한 결심을 하기도 했다.[87]

---

86)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5쪽.
高加林渾身硬得像一截子樹椿，他鼻子口裏噴著熱氣，根本不聽二老的規勸，大聲說：“反正這樣活受氣，還不如和他狗日的拼了！兎子急了還咬一口哩，咱這人活成個啥了！我不管頂事不頂事，非告他不行！” 他說著，竭力想把兩條光胳膊從四只衰老的手裏掙脫出來。但那四只手把他抓得更緊了。兩個老人哭成一氣。他母親搖搖晃晃的，幾乎要摔倒了，嘴裏一股勁央告說：“好我的娃娃哩，你再犟，媽就給你下跪呀.....” 路遙，『人生』, 9~10쪽.

87)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71쪽.
他知道他今天這一切全仰仗馬占勝同誌。他叔父誠心誠意不給他辦事！但是，他不辦，有人替他辦。他從自己人間天上一般的變化中，才具體地體驗到了什麽叫後門－後門，可眞比前門的威力大啊！想到他是從後門進來的，心裏也不免有些惴惴不安：現在到處都在反這東西！
但他很快又想：查出來的是少數！占勝說，哪個貓都沾腥哩！他讓他放心，說出了事有他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高加林에게는 낙후된 농촌과 부정한 수단이 반항의 대상이었으나, 농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반항하고 싫어했던 수단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다. 이러한 반항과 타협을 통해 그의 자아 중심적인 이기적인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연애에 대한 반항과 타협

高加林이 黃亞萍과 劉巧珍 두 여인과 연애할 때 두 사람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태도에서 그의 반항과 타협의 또다른 면을 볼 수 있다.

高加林은 농촌의 고루한 도덕관과 저속한 여론에 도전하고 반항했다. 劉立本이 자신의 딸 劉巧珍과 高加林의 연애를 반대하자, 高加林은 劉立本이 근처에 있을 때 일부러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 高加林은 오늘 그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보란 듯이 劉巧珍과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어 劉立本의 화를 돋우기로 했다.
>
> 高加林이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
> "巧珍, 이리 내려와 봐! 할 얘기가 있어!"[88]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劉巧珍과 일부러 같이 자전거를 타고 현성까지 갔다. 高加林은 이것이 이성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귀는 권리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를 "되바라진(不正經)" 것이라고 생각했다.

高加林이 黃亞萍과 연애를 하자 이 역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高加林의 태도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타협까지 했다.

於是他就盡量不往這方面想了他覺得他旣然已經成了國家幹部，就要好好工作，搞出成績來。這種心情也是眞實的。他有時還把他的變化歸到了黨的關懷上，下決心努力爲黨工作一一並且還莊嚴地想：幹脆，明年就寫入黨申請書! 路遙, 『人生』, 145쪽.

88)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19쪽.
他要和巧珍公開拉話，讓他看一看！把他氣死。
他故意聲音放大喊："巧珍，你下來！我有個事情要和你說！" 路遙, 『人生』, 9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高加林은 처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黃亞萍이 얼마 안 가서 이곳을 떠날 텐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자고 했다. 더 대담해져야 대도시에 가서 그곳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며 高加林을 부추겼다. 加林도 '실습생' 같은 기분으로 黃亞萍이 하는 대로 따랐다.[89]

黃亞萍은 전형적 도시 여자로서 낭만과 짜릿함을 중시한다. 그래서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된 高加林에게 도시 사람들의 연애 방식도 적응시켜야 했다. 여기에 약간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 작품에서 高加林이 黃亞萍에게 타협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큰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현위원회 선전부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바로 옆 전화실에서 전화가 왔다면 高加林을 불렀다.

전화를 받아보니 黃亞萍이었다. 수입산 과도를 어제 놀러갔던 곳에 빠뜨리고 왔으니까 찾아오라는 얘기였다.

高加林은 지금 회의 중이고 비기 많이 오니까 점심 휴식시간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黃亞萍이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 그까짓 것도 못 해주느냐고 원망하더니 수화기 저편에서 훌쩍이기 시작했다.

高加林이 짜증이 났지만, 회의실로 가서 아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선전부장에게 거짓말을 했다.

(……)

그는 黃亞萍의 숙소 문을 열었을 때 亞萍이 웃으면서 물었다. "갔다 왔어?"

"응, 그런데 못 찾았어."

그런데 黃亞萍이 깔깔 웃으면서 호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는 것이었다.

高加林이 물었다.

"찾았어?"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내가 장난치려고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시험도 할겸! 화내지 마. 낭만을 느껴보려고 그랬어……"

高加林이 성을 내면 거친 욕을 쏟아냈다.

(……)

89)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33쪽.
高加林起先並不願意這樣。但黃亞萍說，他們不久就要離開縣城了，別人願怎樣看他們呢！她要高加林更灑脫一些，將來到大城市好很快適應那裏的生活。高加林就抱著一種"實習"的態度，任黃亞萍折騰。
路遙, 『人生』, 19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 날 黃亞萍이 통조림과 몇 가지 먹을거리를 잔뜩 사가지고 高加林을 찾아와 울며 사과했다. 앞으로 다시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高加林도 화를 풀고 그녀와 화해했다.[90]

만약 위 사건을 劉巧珍이 일으켰다면 高加林은 추호의 여지도 없이 그녀를 버렸을 것이다. 高加林이 劉巧珍과 사귀었을 때는 그의 학력 덕분에 주도권을 쥘 수 있었고, 劉巧珍은 그가 시키는 대로 모두 따랐다. 高加林은 기분 내키는대로 巧珍에게 열정적이었다가 차가워지기도 했다.[91] 이와 반대로, 그는 黃亞萍의 장난스러운 어이없는 행위 때문에 화를 냈다가, 그녀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3. 순수함과 이기심

高加林의 감정은 전통 농민의 아들로서 순수다가도 개인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간혹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인생』에서 高加林의 모순된 마음은 주변의 농민들에게 드러난 바 있다.

---

90) 허유영, 『가오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35~236쪽.
有一天上午，雨下得很大，縣委宣傳部正開全體會議。隔壁電話室喊高加林接電話。
加林拿起話筒一聽，是亞萍的聲音。她告訴他，她的一把進口的削蘋果刀子，丟在昨天他們玩的地方了，讓高加林趕快到那地方給她找一找。
加林在電話上告訴她，他現在正開會，而且雨又這麼大，等中午休息的時候他再去。
亞萍立刻在電話上撒起了嬌，說他連這麼個事都如此冷淡她，她很難受，並且還在電話裏抽抽搭搭起來。
高加林煩惱極了，只好到會議室給主持會的部長撒了個謊.
(……)
加林說：“去了。沒找見。”」
亞萍突然咯咯地笑了，從衣袋裏掏出了那把刀子。
“找見了？”加林問。
“原來就沒丟！我故意和你開個玩笑，看你對我的話能聽到什
麼程度！你別生氣，我是卽興地浪漫一下…”
“混蛋！陳詞濫調！”高加林憤怒地罵著，嘴唇直哆嗦。他很快轉過身就走了。
(……)
第二天，黃亞萍買了許多罐頭和其他吃的來找他，也是哭著給他道歉，保證以後再不讓他生氣了.
加林看他這樣，也就和她和好了。 路遙， 『人生』, 200~202쪽.

91) 그가 만두를 팔 때, 치아오전이 도와주자 이게 감동하여 그날 밤에 치아오전에게 보인 열정적인 태도와 그 다음날 이를 후회하며 냉대하는 대목을 보라. 路遙， 『人生』, 51쪽, 5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농민을 무시한 적도 없지만 농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적도 없었다. 그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 것은 아버지처럼 평생 땅의 주인(그는 이것을 노예라고도 했다)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는 걸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다[92].

高加林은 농민으로서 살아가긴 원치 않았으나, 농민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는 농민 신분을 벗어나 도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식 청년으로서 도시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서 농민을 차별 대우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다. 도시 사람들이 농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는 심지어 농민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가 현성에 대변을 수거하러 갔다가 "촌 것(鄉巴佬)"이란 욕을 들었을 때 아래와 같은 심리를 느꼈다.

高加林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콧부리가 시큰거렸다. 농촌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다니! 일 년 내내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해가면서 수확한 곡식을 말리고 키질해서는 저런 사람들 먹으라고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성으로 보낸다. 그리고 저들이 그걸 먹고 궁둥이를 치켜들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다시 농촌 사람들이 와서 변소 청소를 해준다. 그런데도 이토록 농촌 사람들을 깔보다니!

高加林은 그 여자를 향한 강렬한 분노와 원망이 치받쳐 올랐다.[93]

위의 표현을 통해서 진심으로 농민을 위하면서도 농민집단을 떠나려 하는 高加林의 모순된 심리를 볼 수 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은 항상 공존한다. 그는 민판교사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극심한 좌절을 맛보고 한 달 동안 의기소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의 부모만 고된 농사에 시달렸다. 이미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高加林은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이가 많은 부모에게 농사를 전적으로 맡긴 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92)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2~13쪽.
他雖然從來也沒鄙視國任何一個農民，但他自己從來都沒有當農民的精神準備！，但他十幾年拼命苦讀，就是爲了不像他父親一樣，一輩子當土地的主人（或按他的另一種說法是奴隸)。路遙，『人生』，7쪽.

93) 허유영, 『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48쪽.
高加林這下不能忍受了！他鼻子根一酸，在心裏想：鄉裏人就這麼受氣啊！一年辛辛苦苦，把日頭從東山背到西山，打下糧食，曬幹簸淨，揀最好的送到城裏，讓這些人吃。他們吃了，屁股一撅就尿就尿，又是鄉裏人來給他們拾掇，給他們打掃衛生，他們還這樣欺負鄉下人！
他對這個婦女産生了强烈的憤恨心理。 路遙，『人生』，12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나중에 자신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후회했다.

양치질을 하다가 집 앞 가지밭에서 구부정하게 엎드려 김을 매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햇빛을 받은 어머니의 백발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았다. 견디기 힘든 자괴감에 가슴팍이 욱신거려 칫솔을 입에서 홱 빼냈다.

'한 달 동안 허망하게 시간만 보냈다!'[94]

高加林의 모순된 성격은 연애할 때도 자주 드러났다. 그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농촌 여성 劉巧珍을 만났다. 劉巧珍은 高加林을 위로해주면서 사심 없이 그를 사랑했고 高加林도 한동안 이 순수한 감정을 즐기면서 농촌 생활에도 적응했다.

사랑은 그에게 대지에 대한 깊은 감정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주었다. 그는 원래 대지의 아들이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고향의 산과 물 사이에서 아름다운 유년기를 보냈다. 자라서 학교에 들어 간 후 몸에 묻은 진흙 냄새가 점점 옅어지고 대지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劉巧珍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도취된 지금 그는 대지 위에서의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 이 친애하는 황토 대지를 딛고 살아도 튼실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95]

劉巧珍과 사귀면서 편안하긴 했으나 한 편으로는 낙후된 농촌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심지어 가끔 巧珍과 만난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

까막눈의 시골 처녀에게 난데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자신이 요즘 실의 빠져 방황하고 있는 탓인 것 같았다. 그날 그의 행동은 평생 농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사실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의 불씨를 아직 꺼뜨리지 않고 있다. 비록 지금은 항토 먼지를 뒤집어쓰고 농민이 되었지만,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젊은 스물네 살이므로 반전을 기다릴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劉巧

94) 허유영, 『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쪽.
高加林刷牙的時候，看見母親正佝僂著身子，在對面自留地的茄子畦裏拔草，滿頭白發在陽光下那麼顯眼。一種難受和羞愧是他的胸部一陣絞痛。他很快把牙刷從嘴裏拔出來，在心裏說：我這一個月實在不像話！ 路遙, 『人生』, 14쪽.

95)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86~87쪽.
愛情使他對土地重新喚起了一種深厚的感情。他本來就是土地的兒子。他出生在這裏，在故鄉的山水間度過夢一樣美麗的童年。後來他長大了，進城上了學，身上的泥土味漸漸少了，他和土地之間的聯系也就淡了許多。現在，他從巧珍純樸美麗的愛情裏，又深深地感到：他不該那麼害怕在土地上生活；在這親愛地黃土地上，生活依然能結出甜美的果實！ 路遙, 『人生』, 7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珍과 인연을 맺는다면 영락없이 땅에 매여 살게 될 것이었다.[96]

劉巧珍에게 순수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녀를 위하여 농민이 될 수 없다는 모순과 고통은 곡괭이에 쓸려 짓뭉개진 손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다. 高加林은 모든 것을 비교한 후,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劉巧珍과 헤어지고 黃亞萍과 더 큰 도시로 가기로 했다. 그때 高加林의 심리는 그의 모순된 성격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劉巧珍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놓칠 수는 없었다. 이건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운명적인 전환점이었다! 배우자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黃亞萍은 劉巧珍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상대였다! 黃亞萍과 연애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劉巧珍과의 연애보다 더 행복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울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저울질이 끝난 뒤 劉巧珍과 헤어지고 亞萍과 멀리 떠나기로 마음을 정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파렴치하고 악한 남자는 아니었다! 張克南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劉巧珍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토굴 안을 서성였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그러다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속으로 자신을 조롱했다. “넌 개자식이야! 양심도 없는 놈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 뭐해…….”[97]

高加林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은 모순되지만 공존한다. 이를 통하여 그의 복잡한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는 高加林이 당시 문학이론이나 문학작품 속 인물과는 달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

96) 허유영,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80쪽.
他甚至覺得他匆忙和一個沒文化地農村姑娘發生這樣的事，簡直是一種墮落和消沈地表現；等於承認自己要一輩子甘心當農民了。其實，他內心裏那種對自己未來生活的幻想之火，根本沒有熄滅。他現在雖然滿身黃塵當了農民，但總不相信他永遠就是這個樣子。他還年輕，只有二十四歲，有時間等待轉機。要是和巧珍在一起，他無疑就要拴在土地上了。 路遙，『人生』，65쪽.

97) 허유영, 『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19쪽.
他反復考慮，覺得他不能爲了巧珍地愛情，而貽誤了自己生活道路上這個重要的轉折-這也許是決定自己整個一生命運的轉折！
他權衡了一切以後，已決定要和巧珍斷絶關系，跟亞萍遠走高飛了！
當然他的良心非常不安-他還不是一個十惡不赦的壞蛋！克南方面他考慮的很少，主要在巧珍方面。他像一個瘋子一樣在自己的窯裏轉圈圈走；用拳頭搗辦公桌；把頭往墻上碰.....他强迫自己不朝這方面想。他在心裏自我嘲弄地說：“你是一個混蛋！你已經不要良心了，還想良心幹什麽.....” 路遙，『人生』，18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結論

路遙의 『人生』은 도농 교차지대의 지식 청년 高加林이 농촌에 들어갔다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출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줄거리로 진행된 이야기다. 주인공은 도시와 농촌, 문명과 낙후, 현대와 전통 등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진실하며 모순된 인류 본래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소설 『人生』은 영웅주의식 모범인물도 아니고 겁쟁이나 나쁜 인물도 아닌 高加林이라는 인물을 통해 신시기의 관성적 문학 현상에 대한 路遙의 도전을 보여준다. 路遙는 현실주의 작가로서 작품은 진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人生』의 진실성은 바로 高加林의 복잡하고 모순된 성격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문화대혁명 문학의 '三突出'창작원칙에 비하면 『人生』은 인물의 진실한 모습과 인간성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상흔문학의 張俊石에 비하면 高加林의 이기주의가 서슴없이 표현되었으며, 반사문학의 李順大에 비하면 高加林의 자아의식과 반항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선명한 대비를 통해 작가 路遙의 진실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창작을 추구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路遙는 『人生』을 신시기의 현대주의 문학을 추구하는 시기에 발표하여 주인공 高加林으로 현실주의 문학이 현대주의 문학으로 대체되는 마지막 방어선을 지켰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주인공 高加林의 자존과 허영, 반항과 타협, 순수함과 이기심 등의 특징을 그의 주요 성격으로 분석했다. 高加林을 통해 소설은 도농 교차지대의 사회, 도덕, 심리 등 다양한 모순을 건드렸고 작품이 다루는 삶의 일부를 진실과 본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작가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당시의 집단주의 사회 배경을 보면 高加林의 이기심, 허영심, 반항 의식 등 성격은 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집단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독특한 문학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작가 路遙는 주인공 高加林의 입체적인 성격을 통해 '圓形 人物'의 특징을 풀어냈다. 路遙가 신시기 문학 창작에서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單面적인 인물 창조의 한계를 돌파한 것이다. 이에 따라 高加林 같은 인물이 우리 삶에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아니라 그의 성격의 표현을 통해 인간의 본질도 알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주인공 高加林은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차이가 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도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 따라 변화하고 갈등하게 된다. 그리고 작가와 高加林의 경험은 비슷한 점이 많으며 작가는 사회제도가 농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路遙, 『人生』,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20.

허유영 옮김,『가오高加林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17.

路遙,『早晨從中午開始』,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20.

楊曉帆, 『路遙論』, 北京作家出版社, 2018.

路遙, 「『路遙小說選』 自序」, 北京十月出版社, 2012.

洪子誠, 박정희 옮김,『중국당대문학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0.

嚴士淸,『新中國戶籍製度演變歷程與改革路徑硏究』, 華東師範大學, 2012.

孟繁華, 程光煒, 『中國當代文學發展史』, 北京大學出版社, 2011.

朱棟霖, 朱曉進, 『中國現代文學史 (1917- 2000)』(下), 北京大學出版社, 2007.

劉鳳芹, 「圓形人物的塑造：路遙創作論」, 山東菏澤學院中文系, 『山花』, 4기, 2009.

馬一夫, 厚夫, 宋學成, 「路遙紀念集,賀抒玉：『短暫輝煌的一生』」,人民文學出版社, 2007.

張艷茜, 「路遙與『人生』」, 紀實文學, 2기, 2013.

梁向陽,『新近發現的路遙 1980年前後致谷溪的六封信』, 新文學史料科, 3기, 2013.

張高領 ,「"進城"的難題与"顚倒式誤讀" －從『創業史』到『人生』」, 『文藝爭鳴』, 6기, 2017.

劉濤, 「梁生寶走了改霞的路－重讀路遙『人生』」, 『文藝報』2013.

王大可, 「改霞的問題：回看『創業史』」, 『文藝爭鳴』, 2기, 2015.

彭厚文, 『文革時期三突出的文藝創作理論述論』, 湖南師範大學, 『襄樊學院學報』, 2012.

王春林, 「賈平凹、陳忠實与路遙－『陝西三大漫談』」, 2020.

曹錦淸, 「一個孤獨的奮鬥者形象-談『人生』中的高加林」, 『文匯報』, 10기, 1982.

梁永安, 『可喜的農村新人形象-也談高加林』, 『文匯報』, 10기, 1982.

焦海民, 『路遙1991年12月在西北大學的演講整理』, 『當代』, 2021.

劉心武, 「班主任」, https://www.rain8.com/wenzhang/2232-2.htm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熊忠武, 『再論傷痕文學 、反思文學的文學史意義』, 湖北第二師範學院文學院,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2009.
楊丹丹, 「農民國民性的想象与塑造－重讀高曉聲的「李順大造屋」」, 海南師范大學社會科學, 6기, 2012.
高曉聲, 『李順大造屋』, https://www.vrrw.net/wx/43694.html?ivk_sa=1024320u.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文摘要>

本文以路遙1982年發表的作品『人生』爲研究對象。其中註重分析主人公高加林的性格。爲此,首先介紹『人生』的創作過程和故事情節及主要人物。

然后与『人生』同時期的創作理論不同的作品中人物的性格。主要以他們的性格首先分析和提出“三突出”創作理論中要求的人物“主要英雄人物”、傷痕文學「班主任」的利他主義和反思文學「李順大造屋」的自我喪失等。在下一章中發現了高加林的性格,自尊心和虛榮心、反抗和妥協、純眞和自私等矛盾而又共存的性格。

由此可以看出,在80年代初文學創作混亂的時代,路遙創造的高加林這個人物的獨特價值。

關鍵詞: 路遙, 高加林, 人物 性格, 三突出, 傷痕文學 ,反思文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Lu Yao's 1982 novel life(人生), and focusing on the character analysis of its protagonist Gao Jialin(高加林). For this, the process of creating life, and its flot and main characters are introduced.

Then, the creative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time of life and the characters in other literature works are reviewed. The theories include 'main heroic character' required by the creative theory of "Three Prominent(三突出)", altruism of Zhang Junshi(張俊石) in the novel is The Class Teacher(班主任) representing the Scar Literature(傷痕文學), and self-loss of Li Shunda in *Li Shunda Builds a House*(李順大造屋), an example of the Reflection Literature(反思文學) are analyzed and suggested as their characteristics. In next chapter, Gao Jialin'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with the ironic co-existence between self-pride and vanity, resistance and compromise, and purity and egoism.

From this, it is discovered unique value of Gao Jialin created by Lu Yao at the time of disorder in creating literature in the early 1980's.

Keywords : Lu Yao, Gao Jialin, characters, Three Prominent, Scar Literature, Reflection Literatur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